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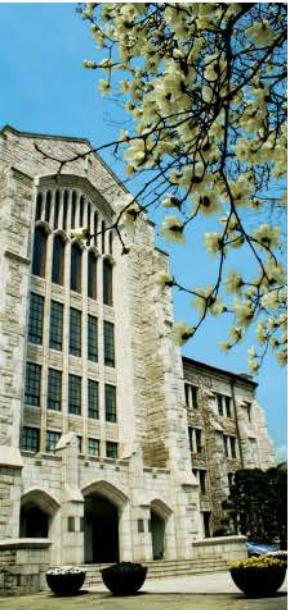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2015년 봄 제138호



이화동창

2015년 봄 제138호



- 02 . 블의 시
03 . 블에 전하는 말씀
04 .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11 . 기획특집

17 . 아름다운 기부이야기
20 . 기획 시리즈
24 . 기획 시리즈
28 . 사랑스런 이화동창
30 . 2015 이화 유망주
32 . 기획 르뽀
36 . 알아두면 유익해요
38 . 총동창회 소식
40 . 대학(원) 소식
41 . 과·학부 소식
46 . 국내·해외지회 소식
56 . 모교 소식
60 . 동창소식
62 . 신입동창명단
73 . 축하합니다
74 . 이화여대박물관 소식
- 다시, 민들레 | 홍오선
'이화'의 희망과 신념의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 조종남
제 17대 신임 총동창회장에 김영주 동창 선출
미래의 든든한 지원자, '이화인' 선후배가 되었어요 |
채문경 성시열 이승연 김수진 김새움 한은혜
모교 '이화' 그 이름 영원히 기억하다 | 이정자 박수자
노교수와 사랑하는 제자들 – 체육대학
소설가 김선주가 만난 이화 경영인 | 크라운 해태 육명희 고문
예원 실그림문화재단 손인숙 이사장
김미영 간호학과 교수가 추천하는 의료전문 변호사 이경희
마법의 첨단 그린 캠퍼스 ECC에서 하루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정혜경

김영숙 조연순 최금숙 조종남 허묘연
80년 역사를 한 눈에 보는 전시회 개최



편집위원

조종남(의약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약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 박경희(신방90)

2015년 봄 제138호 비매품 | 발행·2015년 4월 10일 | 발행인·김영주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도서출판 문예바다(02-744-2208) | 디자인·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 | 02-743-7432

인쇄·독립인쇄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5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다시, 민들레

홍오선 (국문 66)

떨어진 꽃씨 한 툴

숨죽이며 살아있어

한겨울 나락 속을 오지게도 해쳐 나와

마지막 기도의 첫 머리

아픈 눈을 뜨고 있네.

이제는 간절한 것들

마음껏 괴워보렴

세찬 바람 타고 올라 연(鳶)이 되어 날아보렴

촉촉이 살 트는 햇살에

온 몸을 맡겨보렴.

놓쳐버린 눈길에도

꽃잎은 흔들리고

알아도 모르는 척 발걸음 감춰두고

전생을 떨며 돌아온

네 그림자 끌어안네.

1985년 '월간문학', '시조문학'으로 등단

시조집 '냉이꽃 안부'의 6권, 동시집 '아기랑 할머니랑' 등.

현대시조문학상, 한국시조시인협회상, 이영도시조문학상,

한국동시조문학상 수상

한국시조시인협회 부회장, 한국여성시조문학회 회장 역임.

봄에 전하는 말씀

‘이화’의 희망과 신념의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조종남 (의학 75) 전총동창회장, 서울 YWCA 회장, 조윤회 산부인과 원장

모교 ‘이화’의 봄동산이 참으로 눈부십니다. 4년 전 3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이라는 소임을 부여 받고 노심초사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4년 전 의사라는 전문직으로 시간을 쪼개며 생활하던 제가 과연 총동창회장의 힘든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129년의 역사와 20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국내외 최고 최대의 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책임감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간들은 제게 큰 감사와 축복의 기간으로 남습니다. 최근 상영되었던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으로 아버지의 초상화 앞에서 “아버지에 저 참 잘했지 예, 근데 정말로 힘들었어 예”하는 주인공 ‘덕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열린 동창회, 확장되는 동창회, 찾아가는 동창회를 기치로 내걸고 하나하나 임원들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습니다. 학부생만이 정회원이었던 회칙 개정을 위해 타 대학으로 동분서주하며 드디어 우리도 대학원졸업생을 정회원으로, 이화 경영인회, AIPS, 평생교육원졸업생을 특별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 짧은 동창들의 총동창회 참여 독려를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가 벌써 4회 째인 것, 총동창회 조기를 만든 일, 모교 이화를 다시 추억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시작한 ‘이화사랑 글짓기대회’, 5월 ‘동창의 날’을 기점으로 해외 동창 초청 오찬모임과 캠퍼스순례행사, 대구 부산 광주 인천지회 방문 등 모두 열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 동창님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사랑과 후원을 받은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뒤늦게 시작한 이화 기숙사모금 목표액 30억 원을 초과 달성하게 해주신 우리 동창님들의 저력과 협조에 가슴 뿌듯합니다. 저의 4년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요한 12장 24절)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욥기 8장 7절)라는 성경말씀을 들 가슴에 새긴 업무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오랜 기간 총동창회 고문으로서 봉사를 게을리 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과분하게 받았던 동창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이 찬란한 봄, 회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모교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이사장님과 총장님의 리더십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역시 새로운 회장께서 새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김 없이 돌아온 따스한 봄볕 속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에 이른 모교 ‘이화’를 생각하며 ‘이화’가 우리에게 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희망과 신념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동창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신임동창 환영회 개최

제 17대 신임 총동창회장에 김영주 동창 선출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총동창회는 2015년도 정기총회를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 삼성 교육문화회관 8층)에서 개최하였다. 220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제 17대 회장 선임 및 임원 개선 등의 주요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교 윤후정 명예 총장, 장명수 이사장, 최경희 총

장 및 총동창회 윤순희(교육 65), 김순영(약학 62) 고문을 비롯한 주영희(음악 57), 최명숙(정외 57) 전 회장 등과 대학(원), 과, 지회의 많은 동창 등이 참석한 이 날 총회에서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1년부터 4년 동안 제 16대 총동창회 회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여러 동창

2015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임동창

■ 때: 2015년 3월 14일(토) 오후 2시 장소: 이화·삼성교육문화관



1. 16대 조종남 총동창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장명수 이사장 2. 제17대 신임 회장단 인사

3. 장명수 이사장 4. 최경희 총장 5. 김순영 고문 6. 김영주 신임회장

들께 진심을 담은 감사를 표하였다.

특히 지난 4년간을 ‘한 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요한 12장 24절)’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욥기 8장 7절)’라는 성경말씀을 늘 가슴에 새긴 업무기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뒤늦게 시작한 이 회 기숙사모금에 적극 참여해 목표액인 30억 원을 초과 달성, 2월 28일까지 약 39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협조한 동창들의 뜨거운 성원에 기습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그동안 ‘열린 동창회, 확장되는 동창회, 찾아가는 동창회’를 기치로 내걸고 임원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기

획하여 개최한 조 회장은 임기 중 총동창회 회칙 개정을 통해 대학원 졸업생을 정회원으로, 이화 경영인회, ALPS, 평생교육원졸업생을 특별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으며 젊은 동창들의 총동창회 참여 독려를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4년째 계속해 오고 있다.

이어서 축사를 한 장명수 이사장은 최근 대학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이화’만의 좋은 교육을 통해 20여만 명에 이르는 훌륭한 동창들을 가진 총동창회의 일원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기는 졸업 30주년 정도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얼마 전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총동창회비 강제 납입



'소동'은 이해 불가라고 하여 참석한 동창들과 신입동창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또한 이제는 '이화'가 우수 여학생을 독점하던 1960년대와 달라졌으므로 우수한 동창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불러모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동창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임원 개선 및 감사패 전달

김효신(의학 84) 총무의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박귀천(법학 95)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 2014년도 사업 및 결산안의 유희숙((법학 65) 감사의 감사 보고와 승인, 201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참석 동창들의 큰 박수 속에 '기'로써 조종남 총동창회장이 인준을 선포하였다.

이어 이 날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인 임원 개선이 있었다. 김순영 전형위원 대표는 제 17대 신임회장으로

김영주(유교 71) 동창, 부회장에 정준순(약학 72), 김광옥(식영 75) 동창, 감사에 남상택(불리 74), 이영란(체육 76) 동창을 발표하여 참석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 8년간 사범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김영주 신임 회장은 '디즈니랜드 직원 이야기'를 인용하며 '총동창회를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한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한편 지난 4년간 총동창회에 불침양면으로 헌신한 조종남 회장에게 장명수 이사장께서 감사패를 증정하였고 퇴임을 아쉬워하는 많은 참석 동창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이어 모교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최경희 총장은 총동창회 신임회장 선출 비밀보장에 대한 언급으로 총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화 DNA

네트워크'와 '이화비전 선포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세계로 벌어가는 이화의 새 프로젝트를 위트있게 설명하여 참석 동창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특히 문과로 시작하여 이공과로 진학하는 '이화 비전'을 위해 제 2산학협력관 건립도 머지않았음을 알려 참석 동창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총회는 교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폐회하였고 참석 동창들은 총동창회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고 앞으로 열릴 많은 행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정기총회에 앞서 신입 동창 환영회 가져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한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는 약 3천 5백여 명의 이대 및 대학원 졸업생이 총동창회에 2015년도 신입 동창으로 입회함을 축하하는 환영회를 가졌다. 이경옥(체육 80)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 날 환영식에서 2014년 8월과 금년 2월에 졸업한 신입 동창들은 선배 동창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박유나(도예 81) 부회장의 기도로 환영식을 시작하였다.

2015년도 신입 동창들이 총동창회에서는 처음으로 선배들과 함께 자리한 이 날, 의과대학 오혜숙(의학 78)

동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교가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이화비전 선포식을 선포하고 명실 공히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지금이 사랑하는 모교의 도약을 위해 신입동창을 포함한 우리 동창들의 단단한 결속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총동창회 신입회원들은 우리 사회 어느 자리에서나 든든하고 자랑스런 이화의 선배들이 있는 당당한 이화인임을 잊지 말라'는 환영과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이어서 답사를 한 김도아(관현악과) 신입 동창 대표는 '이화라는 이름 덕분에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여성리더가 되길 꿈꾸며 자신이 이화여대 정문에서 보았던 세계는 이화에게 물었고, 이화는 너를 답했다.'는 글귀를 인용, 세계적인 이화여대의 답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런 후배가 되겠다고 화답하여 선배 동창들의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박성희(성악 01) 동창의 '봄의 월츠' 강건너 봄이 오듯 풍 멋진 축가를 들으며 선후배 간의 돋보기 우정을 나눈 환영회를 마쳤다.



신임 제 17대 총동창회장 인사말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동창들 한마음 되게 거듭 나기를

김 영주(유아교육과 71년도 졸업, 전 사범대학동창회장)



130년 전통을 가진 이화여자대학교의 총동창회장을 맡은 일이
일반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동창회 일을 아는 사람
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도 맡으
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금전과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열심히 해야 하
는 자리이며 웬만큼 해서는 좋은 소리도 못 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난감한데 며칠 전 카톡으로 친구가 보내준
글이 생각납니다

2+2=4 즉 이해+이해=사랑이라는 공식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4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꺼내
서 문제해결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20만 명이 넘는 동창의 개개인의 마음을 다 살필 수는 없으나 중용을 지키고 협평성
에 어긋나지 않게 처신하려 합니다.

100년이 넘는 동창회의 역사 속에서 내려온 전통을 중시하고, 그동안 해온 일들이 왜 그렇
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생각하며 다른 방법은 왜 선택을 안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자문을 구하고 총동창회의 고문 선생님의 의견을 경청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총동창회 회칙 제1장 2조에 있는 모교 발전에 적극 협조함이 동창회가 있는 목적임
을 알기 때문에, 모교 발전이 동창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알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힘으로 그 큰일을 해 나갈 수 없으므로 우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총동창회가 진정으로 학교 발전
에 도움이 되고 동창들을 한마음으로 묶어지게 되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신입동창 충동창회 입회 환영사

자랑스런 선배들 있는 당당한 이화인임을
잊지 말기를

오혜숙(의학78) 의과대학 동창회장



아름다운 이화교정에서 대학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이 자랑스런 이화의 동창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20만 동창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입회를 축하하는 환영사를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886

년 구한말, 메리 스크랜顿 선교사에 의해 우리 이화는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이화는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위기 또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세계 최고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난 129년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모교는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의 목표로 이화비전 선포식을 선포하고 명실 공히 세계 최고가 되고자 도전과 혁신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랑하는 모교 이화의 도약을 위해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동창들의 단단한 결속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섬김과 나눔, 헌신과 봉사의 이화정신으로 우리 동창들은 현재 각 전문분야에서 이화인의 이름을 빛내며 멋지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선배동창들의 뒤를 이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훌륭한 리더로서 활동하게 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사회 어느 자리에서나 든든하고 자랑스런 이화의 선배들이 있는 당당한 이화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화 총동창회는, 젊고 활기찬 신입 동창 여러분들에게, 더욱 힘차고, 커다란 꿈으로 세계를 향해 이화의 역사, 더 나아가서 여성의 역사를 다시 써주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당당함을 함께 지닌 이화인으로서, 탄탄한 디딤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이화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버팀목으로 삼고, 이제 한 단계 더 비상하는 이화의 동창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신입동창 답사

저희 또한 후배들에게 버팀목이자
귀감이 되겠습니다

김도아(관현악과, 15)



먼저 제가 많은 신입 동창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봄이면 음대 가는 길에 하얗게 피어있는 목련을 보며 수업을 들었고, 여름이면 대강당을 싱그럽게 감싸주는 푸르른 나무들을 보며 채플을 들었습니다. 가을이면 ECC동산의 새빨간 단풍나무가 생각납니다. 겨울엔 학관가는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기도 했지요. 네 번의 사계절을 겪는 동안 이화는 제게 든든한 울타리였고 함께 꿈을 꾼 친구였습니다.

'이화'라는 이름으로 저는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기회를 얻었고 이것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전공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어느 곳이든 선배님들이 계셨고, 선배님들은 제가 부족할 때에 기꺼이 도움을 주셨으며 저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이화에서 만난 동기들과 올바르고 당당한 여성상에 대해 고민도 해보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여성리더가 되길 함께 꿈꾸었습니다. 이처럼 울타리이자 친구였던 이화여대에서 배웠던 것들이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화에서 더 큰 세상을 위한, 더 높이 날기 위한 과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심히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소중한 동기들, 든든한 선배님, 우리 이화인들 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정든 이화를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발돋움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걱정과 막연한 설렘에 첫 발걸음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사회 어느 곳에서든 그자리를 빛내주시는 이화인들이 있는 것을 알기에 믿고 다음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이화인에게 선배님들께서 하신 것처럼 저 또한 후배님들에게 버팀목이자 귀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안

2015. 3. 1 – 2016. 2. 29



1. 신입동창환영회 및 정기총회(3월 14일)
2.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15일)
3. 메시아예수 발레공연(4월 25일)
4. 제4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5월 16일)
5. 이화창립129주년 기념 감사찬양제(5월 19일)
6. 동창의 날 행사(5월 29일)
졸업50주년(1965년 졸업), 졸업30주년(1985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합창제
7. 해외지회 동창을 위한 간담회(5월 30일)
8.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비자(5월 중)
9. 이화교정 걷기 행사(6월 중)
10. 제 2 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6월 ~ 8월)
11. 후원이사 간담회(10월)
12. 문화특강(문화탐방)(6월, 10월)
13. 제 14회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10월 29일~11월 1일, 미국 아틀란타)
14. 제 11 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시상(11월 30일)
15. 이화인의 밤 개최(11월 30일)
16.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3일)
17. 동창회보 138호~141호 발간(3, 6, 9, 12월)
18. 국내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전반기, 후반기)
19. 연회비 납부회원 배가 운동(연중)
20. 후원이사 증원(연중)
21. 모교발전기금(신축기숙사 건축기금) 모금(연중)
22. 동창회 기금 마련 위한 소비자(수시)
23. 지원사업(연중)
 - 1) 무료 법률상담
 - 2) 나눔가게 등
24.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25. 황화방 운영(연중)
26. 기타

미래의 든든한 지원자, '이화인' 선후배가 되었어요

총동창회에 반갑고 기쁜 일은 신입회원을 맞는 일. 금년에도 3천 5백여 명의 신입회원을 맞았다. 대학, 대학원을 망라한 이화 신입동창회원들은 저마다 각각 총동창회에 대한 기대감이 다르겠지만 '이화인'이라는 어휘 하나로 따뜻함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사회와 가정 곳곳에 그들을 감싸 안는 선배가 있기 때문이다.(편집자주)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 있기를 기대

채문경

(대학원72, 이대 명예교수) 대학원동창회장



이화동산에 어김없이 봄이 시작되어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축복처럼 봄이 다시 찾아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대학원 동창회장으로 우선

대학원 동창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원 동창회는 1970년 발족하여 초대 이남덕 회장님을 시작으로 10여명의 회장을 거쳐, 45년간 많은 임원 선생님들의 노력과 회원들의 참여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학원의 석, 박사 졸업생은 거의 30,000명이 되었습니다. 학부 졸업생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

만, 전문 분야에서 이화인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화여대에서 배출한 전문직 여성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은 대학원 동창회의 오랜 숙원이던 '대학원 석, 박사동창이 총동창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해'입니다. 실제로 이화여대 학부를 졸업한 동창은 총동창회에 당연히 회원이 되었으나, 타교에서 온 대학원 석, 박사 졸업생에게는 그동안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화에서 학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이화의 정신을 배우고, 느끼고, 생활하면서 '이화인'이 되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동창회에서는 매년 우수한 박사과정 논문학기 장학생을 선발사업을 실시하여 그동안 12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이화의 학문적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밀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학문적 성과는 곧

세계적 수준의 이화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동창회의 발전과 더불어 학문적 발전의 디딤돌이 될 다양한 장학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춘계, 추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각 분야의 여러 교수님들이 특강 강사로 참여하여 대학원 동창회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준 높고 내실 있는 학술 세미나를 기획하여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등 이화 구성원의 많은 관심 속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년에는 조금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과 실천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대학원 졸업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가 대학원 동창회의 활성화를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이화의 역사가 늘 큰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대학원 동창회의 미래도 이화 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비전으로 의미 있는 역사를 더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화 동창회는 신입 동창들의 확실한 'backup'

성시열

(의학81, 성내과의원 원장기획) 총동창회 전 정보통신부장



이화 동창회는 신입 동창들의 확실한 'backup'이 될 것이다.

지난 3월 14일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에서 김도아 신입 동창의 답사를 들으며, 더 이상 내가 동창회를 소개할 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렇게 이화인의 삶과 미래를 잘 파악하고 있던지, 장명수 이사장의 말씀처럼 졸업 30년 가까이 되어서야 이

화 동창으로서의 철이 들기 시작한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2007년 4월, 의과대학 16대 동창회 우경숙 회장의 부르심으로, 졸업하고 26년 만에 나는 처음 동창회 일을 시작했다. 대전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어서, 대전 이화의대 동창 모임에는 참석 했지만, 서울에서 모이는 의과대학 동창회엔 그 때 처음 참석한 것이다. 나의 임무는 정보통신이사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얻은 것이 참 많았음을 느낀다.

동창회 일을 하며 나는 이화가 나에게 얼마나 큰 부분이었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화의 전통과 이념, 이화의 교육이 바탕이 되어, 나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이화의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가게 되었던 것. 그 뿐 아니라 동창 선우배님들 삶을 가까이 대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도전을 받고, 위로 받고, 격려 받으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나의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2013년 3월 총동창회 조종남 회장께서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면서 나에게 정보통신부장 직을 맡겨 주었다. 그 후 총동창회 임원회에 참석하면서, 의과대학 동창회 때와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화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고문님, 단과대학 동창회장님들, 시간과 정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임원 여러분을 보며, 이화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쓰신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화의 발전은 곧 우리 사회와 나라의 발전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2014년 4월 정보통신부 신설 기념 '이화 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하고 문집을 만들게 되었을 때 서로 도우며,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임원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 개최한 것이라 응모작 전부를 문집에 넣었는데 내 글도 응모작으로 실리게 되

었다. 작년 2월 뇌출혈로 죽음을 직면했다가 겨우 살아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글인데, 문집의 글을 부모님께서 보시고 두 분은 여러 의미의 감격으로 눈물지으며 읽고 또 읽으셨다. 나 역시 글짓기 대회 응모작들을 읽으면서 이화의 얼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화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동창회를 통해 나의 나됨에 이화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기에, 신입동창들에게도 이화 동창회가 여러분 삶의 확실한 'backup'임을 꼭 알리고 싶다.

“나처럼 20여년을 소모하지 말고, 첫 걸음부터 여러분의 저력인 이화 동창회를 발판 삼아 마음껏 꿈을 펼치십시오. 최고의 지성인 20만 이화 동창이 친정언니 같은 여러분의 지지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전은 곧 이화의 발전이고, 저와 우리 동창회의 미래이기도 하며, 나아가 나라의 발전인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저희 이제 당당한 이화동창 되었어요

이승연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 15)



고후배들과 작별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에 조금 설레기도 하는 복잡한 감정

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모교를 뒤로하고 낯선 학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나는 잘 적응하기 위해 이화에서의 추억은 잠시 묻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3월 초, 개강을 맞이하여 낯선 캠퍼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긴장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되었다. 원래 낯을 조금 가리는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 동기들은 사귈 수 있을지, 선배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잠시 묻어둬야겠다고 다짐했던 '이화라는 이름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힘이 되었다. 동기 중 한분이 "혹시 이화여대 졸업생 아니신가요?"라고 물으며 다가오시더니 대학원 내에 이대 동창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같이 참석하자고 하셨다. 그 모임에 가보니 이화여대 동창 선배님들이 맛있는 밥도 사주시며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족보 등의 좋은 자료까지 있으니 걱정말라는 든든한 말씀도 해주셨다.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다양한 대학교 학부 출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특별히 모임을 갖거나 챙겨준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 그런데 우리 동창들은 바쁜 와중에 3학년 선배님들까지도 이대 후배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이 되주고자 모임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우리 동창들의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날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드려 번거롭게 해드린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 감사의 마음을 전했더니, 본인도 전에 계시던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며, 나에게도 앞으로 후배들이 오면 잘 챙겨주라고 부탁하셨다. 이렇게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내리사랑'이 우리 이대 동창의 힘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분명 우리 동창들은 곳곳에서 서로 돋고 의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화동창들의 사랑과 결속력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대 총동창회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든든한 총동창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그 어떤 곳에 가도,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화 동창 선배님들, 동기들, 그리고 앞으로 가입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낼 후배님들이 계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 이화 동창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총동창회가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 개인적으로도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동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 폭의 따스한 풍경으로 다가오는 동창회

김수진

(국문15, 이대 디지털미디어 학부 석사 재학 중)



지나고 난 뒤, 꼽씹어 볼 때마다 '난풀'이 나오는 추억들이 있다. 당시에는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야 그 때 내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 그들 뒤로 지나가던 풍경들, 그들과 함께 했던 소소한 일

들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정도전의 〈訪金居士野居〉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立馬溪橋問歸路 不知身在畫圖中. '말을 다리에 세우고 돌아갈 길을 묻노라니, 내 몸이 한 폭의 그림 속에 있는 줄 미처 알지 못했구나'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은 모두 그 당시보다 좀 더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추억들이 많다. 이화의 동창 또한, 나에게 있어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존재이다.

사실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자마자 느낀 것은 외로움이었다. 같은 지역에서 이화로 함께 온 학우들도 없었거니와 협사리 적용할 수 없었던 억양 때문이었고 이전 까지와는 달리 혼자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고, 혼자 다시 돌아오게 되는 반복되는 생활이 나를 외롭게 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닥쳐왔다. 그래서 착각했다. 채플 시간에 말씀해 주신 진정한 여성 리더의 모습이란, 비유자하면 홀로 꽃꽂하게 서 있는 나무와도 같은 것이라고. 이화 출신의 홀륭한 여성 리더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화 동창의 힘을 느끼게 된 것은 '선배라면'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포털 사이트에 매번 들어갈 때마다 본 '선배라면'이었지만, 이전까지는 그 글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홀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이화가 추구하는 진정한 여성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래서 작게는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크

게는 이화의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 속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패기 어린 생각 또 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었고 또한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지쳐갔었다. 지쳐가던 도중 받게 된 것이 '선배라면'이다.

생면부지의 선배들로부터 받게 된 '선배라면'은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보탬이 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는 늘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화에 들어온 이상 혼자가 아니며 이화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보듬어주고 품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등, 하교 할 때마다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주시해서 보게 되었다. 이화가 지금 현재 열심히 나아가는 것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봐주고 있는 선배들이, 그리고 총동창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지나고서, 곱씹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같은 공간 아래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은 누구도 아닌 이화의 동창이라는 것을. 이화인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한 폭의 풍경' 속에나 또한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는 선배, 후배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뭉이게 되었다. 나 누구보다도 보듬어줄 든든한 울타리가 생겨 든든해지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화 동창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굳센 다짐 하나하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되어도 이화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다. 그러니 수많은 이화인 중 한 명이

지쳐가던 도중 돌아보았을 때, 이화의 동창이라는 '한 폭 풍경' 속에 함께 존재했었다는 것을 언제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려했던 것처럼 한 폭의 따스한 풍경이 되어 주십시오.

세대를 초월한 '마음의 청춘' 품고 만나는 곳이 총동창회

김새움

(대학원 식품공학15)



학부 졸업 전까지는 학교 안의 사람들만이 이화인, 이화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대학원 진학 후, 학부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궁금했던 학교 소식을 물을 때에서야 졸업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이화 선배들을 만난 에피소드를 풀어놓을 때 이화라는 이름 하나로 따뜻한 인연을 맺게 됨을 종종 전해 듣게 된다. 같은 전공도 아니고 같은 교양 수업 하나들은 적 없고 일면식도 없는 선배들이 반갑고 따뜻하게 대해서 실 때 의아한 마음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하지만 각자의 청춘이라고 불리우는 시절에 같은 캠퍼스를 공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연의 끈을 끊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업 전 마지막 채플이 떠오른다. 이화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내 청춘의 많은 시간을 보낸 이화에서의 시간들을 돌이켜보았다. 많은 수업과 과제, 경쟁 속에 학교에서 얻은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이화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고, 학교라는 울타리가 그 동안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그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 흘로서야 한다는 약

간의 두려움도 느꼈던 것 같다. 졸업 후 신입동창이 되고 나서 총동창회 안에 20여 명의 이화인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전에 인식하던 이화인의 범위가 몇 배로 경충 편수가이고, 그만큼 든든하기도 했다.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이화DNA를 공유하고 있는 동창들이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 중 하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뭐든지 참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었다. 모든 일에 열심으로 하는 유전자는 사회에서도 빛을 발해 이화라는 이름을 더욱 밝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화인들에게 총동창회는 통합 네트워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화의 통합 네트워크로서 이화인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푸른 시간을 이화에서 보낸 동창들이 세대를 초월한 '마음의 청춘'을 품고 만나는 곳이 총동창회라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푸름을 잊지 않는 총동창회 모든 이화인이 되길 바라고, 어느 곳에서든 이화동창을 만나면 다시 우리의 청춘으로 시간을 돌리는 기적 같은 마법이 일어나길 바란다.

선후배 만남 가지도록 총동창회가 길 열어주길

한은혜

(지구과학교육 15)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데, 올해 많은 이화의 졸업생들 중 최



연소 졸업생이 되어 회보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재학시절엔 생각하지 않았던 동창회 회원이 되었다는 현실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많지만 그 중 동창회란 나와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는 내가 어디에 있던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의미인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4년을 보냈다. 이런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이는 유능하고 진취적인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에서의 4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든든한 베텁목이 될 것이다.

중.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이화여대를 졸업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이화여대에 가고 싶다는 꿈을 꿨듯이, 나도 미래의 교사로서 이화 안에서 가졌던 열정과 사랑으로 많은 학생들의 귀감이 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나 사회로 한발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나와 다른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길을 걷고 있는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총동창회에서 길을 열어준다면 내가 우리학교 출신 선생님들을 보며 교사의 꿈을 키워온 것처럼 나와 같은 동창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 층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젠 이화 안에서의 빛나는 추억을 뒤로 하고 앞으로 가 더 의미 있고 빛나는 이화의 졸업생이 되겠다.

딸과 자매는 잊었지만 모교 ‘이화’는 그 이름 영원히 기억하다

‘이화 정신’이 ‘나눔과 섬김, 사랑’임을 모르는 이화 동창은 없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모교 ‘이화’는 우리에게 지식의 가르침과 더불어 스무 살 이후의 값진 ‘삶의 행로’에 대한 지혜를 가르쳤다. 영원히 삶을 함께 할 것 같았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幽明)을 달리한 후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은 그 상실감을 ‘나눔’으로 승화시켜 ‘이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기부’로 사랑하는 딸과 자매의 이름을 영원히 ‘이화’에 남기고 있다.(편집자주)



천상에서도 빛날 딸 ‘최정윤’ 이름으로 모교 후원금 기탁

2005년 3월 5일 미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최정윤(신방 94) 동창의 어머니 이정자(교육 61) 동창은 해가 갈수록 가슴에 불은 딸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서른 네 해를 누구보다 열심히 살다간 딸의 빛나는 이름을 모교 이화가 기억해 준다면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았다. 마침 모교는 지난해부터 ‘이화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의 일환으로 1천만 원 이상 기탁한 기숙사 건립 후원자의 이름을 기숙사 방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던 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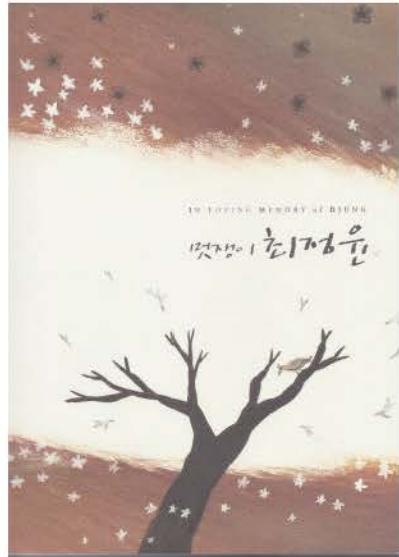
이 동창은 장례식을 마친 2005년 5월 딸이 생전에 사랑했던 언론홍보영상학부(신문방송학과) 후배들을 위해 부의금을 기탁, ‘최정윤 장학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후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봄 10주기를 기리면서 학부 4년간 수석 장학생이자 성실한 기숙사생이기도 했던 고인의 후배들을 격려하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어머니는 가슴 깊이 불은 딸의 뜻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심하고 모교에 기숙사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하였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정윤아, 너도 좋으냐?” 고 최정윤 동창은 학사, 석사를 모교에서 마치고 2001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로 유학을 떠나 사고를 당한 해인 2005년 박사학위 논문을 내고 졸업할 예정이었다. 더 우기 그는 2004년부터 강사로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부생을 가르쳐왔으며 강의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매해 최고의 강의 평가를 받은 강사에게 수여되는 ‘우수강사상’을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인재 중의 인재였다.

펜실베니아 주립대는 사고 직후 기존 학장 명의였던 동 우수강사상의 이름을 ‘최정윤 우수강사상’으로 바꾸었고, 고인 명의의 장학금을 제정하고 고인의 이름을 새긴 벤치를 교내에 마련할 정도로 그를 아꼈다.



고 최정윤 동창



고 최정윤 동창을 기리며 은사와 친구들이 써낸 책

고 최정윤 동창은 가는 곳마다 교수와 동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1주기가 되던 2006년에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 중학교 때 친구부터 학부와 대학원의 후배들, 미국 대학의 지도교수까지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 모였다.

한 편 한 편 글과 편지로 고인을 추모하고 영정 앞에 추모의 책을 바쳤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발전가능성이 너무도 커던 고 최정윤 동창과 딸을 기리며 애통해 하는 이정자 동창을 보며 최근에 보았던 한 짧은 이의 비문이 생각났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던 그대,
천상에서도 빛나길.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대 위의 흙이 무겁지 않기를

이토록 아름다운 한 사람, 고 최정윤 동창을 잊지 못하는 동료, 스승,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자그마한 기숙사방의 인연으로 이어져 모두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반짝일 것이다.

부모, 자매 이름 모두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

'이화'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세 자매가 있다. 박매영 (약학 56, 미국 거주), 박수자(의학 63), 고(故) 박수현(약

학 64) 동창이 그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화'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가르친 부



고 박수현 동창



오른쪽부터 박수자, 박매영 자매

모님이 계시다. 고(故) 박순원 회장(1904~1995)과 (故) 문태임 여사 부부의 세 자매 '이화여대 보내기'는 떨들 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심을 길러주고픈 일념에서였다. 그 때문에 세 자매는 악대와 의대를 다녔고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특히 박수자 동창은 일년 터울로 함께 학교에 다녔던 자매, 고 박수현 동창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2013년 10월 약대건축기금 3억 원을 기부하였다.

고 박수현 동창은 학창 시절 악학대학 베이퀸 후보가 되었을 만큼 미인이었다. 미국 LA의 큰 종합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할 때는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탁월했고 주위를 배려하는 친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자매 중 믿언니인 박매영 동창은 미국에 살면서도 항상 모교를 생각했고 모교 후원의 일이 있을 때마다 후원의 손을 벌어 자매는 2005년 7월 '송암장학금'이라 명

명된 장학금을 후원하기 위해 이미 1억 원을 출연했었다.

세 자매의 어머니 문태임 여사는 모교 '이영희' 회장, 대한YWCA연합회 회장, 호수돈학원 이사, 정동교회 장로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분이며 문태임 여사의 든든한 버팀목은 남편 박순원 회장이었다. 이화를 사랑하여 슬하의 세 자매를 이화에 보냈고, 또 사회의 큰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의 삶이 이화 가족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는 자매의 마음이 부모와 이화 동창 자매들의 이름 모두를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든 것이다.

진정 봉사하는 마음은 대대손손 이어져오는 DNA인지도 모르겠다.

사후(死後)에도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역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글.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전홍보부장)

노교수의
화상

나의 안식처, 하나님 사랑 일깨워준 이화동산

조성환

체육학과 1949년 졸업
전 이대 체육학과 교수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YWCA 이사 역임



나는 이화에 우리나라 최초로 체육학과가 만들어졌던 1945년에 입학하였다. 1949년에 졸업하였고, 1956년 4월부터 1993년까지 37년간 이화동산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당시 미국에서 체육학 석사를 마치고 귀국하신 김신실 선생님께서 학과장이셨는데, 나는 모교 체육학과의 1회 졸업생으로서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냈다.

처음에는 교양체육 책임자로 일하였고, 그러기에 여러 강사들과의 추억도 많다. 김옥길 총장님 때에는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에 연구교수로 파견되어 교양체육과 포크댄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 귀국해서는 국내 포크댄스 보급 및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여성체육학회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정의숙 총장님 때에는 모교 수영장의 초대 책임자로 임명받았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많은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학생들의 수영 지도를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부담감이 커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무런 사고 없이 책임자로서의 입기를 무사히 마쳤다. 또한 모교의 일반운동부(수영, 육상, 연식정구, 핸드볼 등)를 맡아 외국에서 경기가 있을 때에 여성 감독으로 또는 인솔지도자로 다녀오기도 했다. 일본에서 있었던 핸드볼 경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이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 선수였던 학생이 후에 교수가 되고, 한국여성체육학회 부회장까지 역임하며 여성체육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화의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화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학교였다.

교양체육 책임자로 또한 일반운동부 책임자로 일할 때 방과 후에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화동산에서 제일 먼저

여대생 하이킹을 다녀오기도 했다. 서대문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이화여대부터 서오동까지 여대생들이 일렬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또한 이화여대 체육대학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캠프장에 가서 해양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처음에는 강원도 초도리에서 시작을 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이화여대 신입생들은 모두 수영수업을 하게 되었다. 초도리가 군사지역으로 끊이게 되면서 충청도 비인에 있는 해수욕장 캠프장에서 해양훈련이 계속되었다. 그동안 남자교수만이 캠프소장을 역임하다가 내가 여성 최초로 캠프소장을 맡기도 했다.

1984년에 올림픽이 미국 LA에서 개최되었는데, 나는 대한수영연맹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에 관한 조사연구와 심판 훈련 차 특임을 받고 파견되었다. 이후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싱크로나이즈드 발전에도 공헌했다. 특히,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에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의 국제심판으로 임명되어 심판을 보기도 하였다. 이후에 나의 지도를 받았던 졸업생이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되기도 하여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이러한 물과의 인연은 스키스쿠버 종목으로 이어졌다. 여름방학 때에는 스키스쿠버 감독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제주도에 가서 여러 해 동안에 기술지도에 힘쓰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화학생들에게 스키, 소프트볼, 축구 등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여성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모교에 재직 당시에 대한체육회 이사, 대한수영연맹 이사, YWCA 이사를 역임하면서 “강철 같은 여성”으로 불리기도 했다. 체육학과장을 맡았을 때, 수영장 책임자로, 그리고 9년간의 기숙사 책임자로 근무하였을 때를 생각하면,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수영하다가 생명이 위독해진 학생이 없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도 고맙고, 나 또한 최선을 다하여 이화동산에서 근무했다는 기쁨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1993년 37년간 재직했던 이화동산을 떠나 퇴임한 이후에는 한국여성체육학회 60주년 공로상과 YWCA 50년 근속 봉사상을 수상했고, 10년 이상 은평 복지관 포크댄스 지도자로 봉사하며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화동산에서 배운 사랑을 다시 후배와 제자들에게 교육하였고, 이화동산을 떠난 이후에는 YWCA와 여러 복지관에서 라인댄스와 포크댄스 등을 통해 봉사를 실천했다. 이보다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쁠 수가 있을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습 가득히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후배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화동산에서의 멋진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갈 것이다. 이화여! 영원히라~~

제자들의 이야기

선생님은 여성체육의 뿌리이자 울타리

방봉서(체육 51, 모교 후원이사, 영락교회 권사)

선생님은 신앙심도 깊으시고, 후배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1947년도에 내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3학년 선배님이셨다. 신입생이라 학교규칙도 모르고 모든 것이 생소할 때,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지도해 주셔서 대학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후에 이화여대에서 “1951년도 체육과 졸업생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그제

서야 나는 ‘올해의 이화인’ 자격으로 교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1970년 졸업생과 1951년 졸업생이 함께 행사에 참여했는데, 1951년도 졸업생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올해의 이화인’ 행사에 임하는 몸가짐과 자세, 줄서기, 그리고 음악 맞추기 등을 지도해 주셨다. 너무나 침착하시고, 다정다감하게 잘 지도해 주셔서 감탄할 뿐이었다. 그래서인지 그 후로부터 더욱 선생님께 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후로 학교에 자주 나가게 되면서 선생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88세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배와 제자들과 함께 라인댄스와 포크댄스를 하기도 하고, 직접 지도하시기도 한다. 선생님은 영혼과 육체가 대단히 건강한 분이시다.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아름답게 사시길 기원하며,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체육의 전도사

김숙자(체육 63, 이대 명예교수, 최고경영자과정 ALPS 운영위원)

1984년 LA올림픽 때의 일이다. LA Pasadena에 있는 한 국올림픽선수단 숙소에 선생님과 제자인 내가 같은 방에 여장을 풀었다. 나는 리듬체조 관련해서 임원으로 참석하였고, 선생님은 수영연맹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과 관련해서 과견된 상황이었다. 제자인 나로서는 오랜만에 스승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숙소가 콘도였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각자 해결 할 수 있었다.

수퍼마켓에 가서 식자재와 과일, 간식 등을 구하기가 너무 좋았다. 나는 선생님께 멋진 세프가 되려고 했고, 지금 생각해도 즐겁고 멋진 추억이다.

또한 May Day 행사 때마다 조성환 선생님과 함께 했던 추억도 잊을 수 없다. ‘이화체조’를 만들어서 May Queen 대관식이 끝나면 운동장에 1학년 신입생들이 매

스케임을 시연했었는데, 학생들이 줄을 잘 맞추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 바닥에 못을 박아놓곤 했다. 어느 해 행사 전날 학생 2천명의 총연습이 있었는데, 못이 비뚤어 박힌 것을 발견하고, 밤새도록 다시 고쳐서 못을 박았던 일은 너무도 생생하다. 요즘은 100세시대로 ‘운동은 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하게 운동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화에서의 체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129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모교의 빛나는 역사가 자랑스럽다. 이것은 여성체육의 중인이신 조성환 선생님께서 함께 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도전정신 겸비한 멋진 선생님

이영란(체육 76, 충동창회 감사, 제15대 체육대학 전미동창회장)

1972년 체육학과를 입학한 그해 여름, 당시에 나는 대한민국 연식정구대표선수로, 조성환 선생님께서는 대표팀 감독으로 함께 일본에 가게 되었다.

그때는 일반인들의 해외여행이 극히 제한되었고 특히 일본 조총련들의 활동 때문에 정구대회 출전을 위한 일본 출국은 공포 그 자체였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더욱이 우리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 아풀로 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만 일본에도 착하자마자 눈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안과를 찾아갔는데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일본어가 잘될지 걱정이라 하셨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없이 일본어를 너무나 잘 하시는 것이었다. 나중에는 의사선생님과 농담도 주고받기도 하셔서 어린 마음에 신기하기도 했지만,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 얼마나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편안하



고향상나를 지켜주실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 강점기 말 1945년에 이화에서 체육을 전공과목으로 선택하여 입학하셨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여성의 대학 공부만도 상상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였을 텐데, 더구나 체육을 선택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도전 정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도전을 하셨고, 결국 체육계에 큰 획을 남기셨으며,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다. 지금도 원로 체육인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속여진다.

건강 노화 실천, 성공하신 스승 이경옥(체육 80, 이대 체육학부 교수)

조성환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화에서의 1학년 여름 방학 중에 참여한 충청도 비인 여름 하계 캠프이다. 당시(1976년) 체육 대학생들은 여름 방학 하계 훈련으로 4학년 언니들과 1학년 새내기가 한 팀이 되어 이대 수련원이 있었던 비인 바닷가에서 해안선을 따라 일렬로 수영을 하며 수영 실력과 체력 훈련을 하였다. 바다 가운데 세워놓은 망루에서 수영복 차림으

로 진두지휘하셨던 분이 선생님이셨다. 특히 선생님의 횡령 품은 ‘우아’ 그 자체여서 시범을 보여주실 때마다 학생들이 환호성으로 답하고 했었다.

선생님의 수영 사랑은 그 후 모교 수영장(김신실 기념관) 건립 위원으로 수영장 건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 그 때는 전교생이 교양체육으로 수영수업을 필수로 이수해야 해서, 이대생은 물에 빠져도 모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 이 수영장은 우리의 자랑으로 영법, 수중 운동, 깊은 물 운동(deep water exercise)을 모두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수중 운동, 스키 스쿠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다목적 수영장이다. 그 옛날에 이런 다목적 수영장을 계획하신 안목이 놀라울 따름이다.

선생님의 물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뿌리 내린 주역 중의 한 분이시다. 싱크로 국가대표 선수와 국제 심판을 육성하셨고, 이들이 현재 한국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화 동창 운동 동아리의 주역으로 현재 88세의 연세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다. 운동을 통해 건강한 장수를 실천하시는 선생님! 우리들의 영원한 멋진 선생님이시다.

창인(暢人), 화인(和人), 락인(樂人)의 경영이념과 아트경영으로 제과업계 선두 달리는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제과

육 명 희 고문

(1969년 경영학과 입학, 2012년 명예졸업)



(주)남덕 대표이사

(주)크라운소비니아 대표이사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부회장

(주)두리푸드 이사

(주)아트밸리고문

◆ 수상경력

경기도우수 경영인상

한국전문대학협회 자랑스러운 전문대학인상

◆ 사회활동

국립국악원 궁중연례악 '왕조의 꿈, 태평서곡' 출연

◆ 주요저서

『一学就会的韓国料理』 중국 현지 출판

『지센린의 인생』 번역 출판

* 안녕하십니까?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의 고문님이시라고 해서 연로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젊고 미인이신 고문님을 뵈니 놀랍고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한양대 교수이셨던 친정아버지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경영학과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학업 도중에 결혼을 해서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 그 때에는 좋은 훈처가 있으면, 학교를 중퇴하고 결혼을 우선으로 했었지요. 결혼하시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제가 2학년 때였어요. 저의 당숙께서 시어른분과 함께 이화여대 교수 휴게실로 저를 보러 오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서 인사를 드렸지요. 그때 저를 보신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저는 무슨 결혼이냐며 펼쩍 뛰었지만 그냥 데이트나 한번 하자는 말에 지금의 남편인 회장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외골수였던 제가 그만 그분께 반해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물론 회장님의 사랑도 대단했지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고, 2남 1녀를 낳았어요. 지금은 모두 결혼하여 손자 4명 손녀 3명을 두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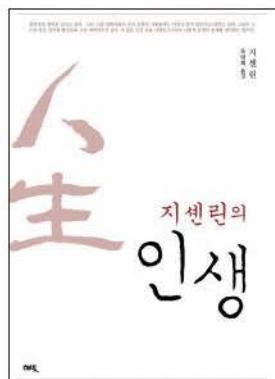


*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셨네요. 현재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제과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신데 회사 경영을 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 1979년에 시아버지께서 포니 자동차를 한 대 사주 시면서 '여자도 경영을 알아야 하니, 밖으로 나기라' 하셨어요. 그때부터 회사에 나가서 전표도 끊고 회계장부도 쓰고 경리업무를 배우면서 회사 경영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저의 시부모님은 두 분이 힘을 모아 크라운제과를 창업하시고 키우셨거든요. 시부모님은 여자라고 아이 낳고 가정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같이 참여하고 도와주며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시부모님 두 분은 진정으로 모든 면에서 선각자였습니다.

*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제과에 대해 소개 해주십시오.

= 1947년에 영일당제과를 설립하여 1956년에 사명을 변경한 크라운제과는 저희 시부모님의 필생의 사업이셨



어요. 어머님은 별사탕을 아버님은 크라운 산도 등을 직접 연구 개발하실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셨지요. 회사는 신용을 쌓고 착실하게 발전하여 2005년에는 저희보다 큰 회사인 해태제과를 인수해 국내 최대 제과전문그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食은 곧 萬本의 根源'이라는 시아버지의 창업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과자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는 우수한 제품 품질에 예술적 감성을 담아 경쟁력을 높이는 '아트경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쿠크다스에 역동적인 물결 모양의 초콜릿 무늬를 넣고, 오예스 포장에 심명보 작가의 '2천 송이 장미'

를 그려 넣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많은 고객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어요. 저희 회사는 앞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행복경영'을 이루기 위해 아트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





으로 고객들의 행복을 위한 제과전문그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애로 사항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고 또 보람은 무엇이 있는지요?

=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지요. 이해와 관용과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안는다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저의 회사는 인재를 중심으로 창인(暢人), 화인(和人), 락인(樂人)의 삼인정신이 경영이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분들이 회복하며 즐겁게 일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경영자인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직원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능동적으로 일할 때, 가장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 고문님께서 기업 경영 이외에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지요. 좀 더 안전하고 품에 이로운 먹을거리를 직접 수확하고 싶어서 양주 바이오 농업대학에 입학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했지요. (수석졸업이라고 옆에서 설명) 양주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들은 100% 크라운·해태 연수원 식당에서 식자재로 사용됩니다. 봄은

고달프지만 모두 분들이 좋아해서 마음은 더없이 뿌듯합니다.

* 국악을 사랑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셔서 번역까지도 하셨는데요?

= 회장님은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13대손이에요. 우리 선조들께서 만들고 즐기신 아름다운 전통 문화의 맥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인 국악을 무척 사랑하셔서 전통 국악의 발전과 저변 확대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세요. 2004년부터 국내 최대 퓨전국악 공연 '창신제'와 국악명인들이 만드는 정통 국악 공연 '대보름 명인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어요. 국악을 사랑하시는 회장님의 열정에 저도 국악 애호가가 되어 사철가, 백구가 등을 직접 배워 완창하기도 했습니다. 또 '왕조의 꿈, 태평서곡'에 혜경궁 홍씨로 출연하기도 했지요. 저희 회사 임직원들도 판소리를 배워서 함께 무대 올라 공연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늘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요. 특히 중국 고전에 심취해서 북경대학에서 수학하기도 했

어요. 그곳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오는 철학자와 학자들의 책을 읽으며 보다 깊고 올바른 삶의 지식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중국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 2010년에는 <한 번 배우면 잘 할 수 있는 한국요리>라는 책을 중국어로 출간하기도 했지요. 또 중국 전통 고전극인 '곤극'을 배워서 '무단팅 중 요웬정명'한 대목을 부르기도 했어요. 제가 가장 침혈을 기울인 것은 중국의 사상가, 문학가, 역사학자, 동방학자, 불교학자, 번역가인 지센린 교수의 '인생'이라는 산문집을 읽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아 번역을 한 것이에요. 지센린 선생은 중국인들로부터 '나라의 스승'이란 칭호를 받을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원로학자에요. 그분의 사상은 정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2014년에 '인생'이라는 책의 번역서를 낸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송추 크라운·태태 연수원에서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었어요. 출판기념회장에서 그동안 익힌 중국어로 저의 소신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된 것 도 가슴 벅찬 기쁨이었어요.

* 이대에서 만난 친구와 은사님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요?

= 이대에 입학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뻤어요. 하지만 짧게 끝나서 친구들과 교수님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몸이 불편했던 친구 서인숙과 홍부길 교수님이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남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아쉬웠는데 이화여대에서 43년 만인 2012년에 명예졸업장을 주셔서 무척 감사했어요.

* 이대 동창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과 총동창회에 주시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동창님들께는 제갈량의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이 일으키는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든 일에 사심과 잡념이 없는 담백함으로 뜻을 밝히면, 고요함으로 먼 곳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후배님들에게는 '젊음은 쉬이 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황금으로도 시간을 살수 없으니, 짧은 시간도 함부로 지나칠 수 없다.'로 이것은 시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명심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 모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노력하여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 오랫동안 고문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이룬 것도 살아가시는 모습도 모두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며 이끌어 오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간 훌륭한 현자들의 깊은 뜻을 배우고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들이 진정 본받고 따라야 할 자세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하고 훈훈했습니다.

글. 김선주/불문 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전 이화동창연집위원



한국 자수예술의 승화 프랑스에 보여주는 문화전도사



1976년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과 졸업
한국미술협회 추천작가, 교육부 실업고등학교 가정교과서 편찬 연구위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기계자수부문 심사위원장, 장애자기능올림픽
지방/전국대회 자수부문 심사위원 등 활동, 중등검정교과서 미술3작품
제작 우즈베키스탄 문화성, 요르단 왕세자, 봉꼴문화성장관, 터키문화
협회장, 인도미술협회, 멕시코시티주 정부 등에서 감사장 받음

손인숙 동창은 미술대학 자수과 (현재 섬유예술과 72)를 졸업했고 현재 예원 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이다. 그는 오는 10월에 한국 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파리 Guimet Museum^이 그의 작품을 6개 월간 전시하기로 선정하여 전시회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파리 Guimet 미술관은 국립동양미술관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동양미술관이며, 지금까지 생존작가의 전시를 한 적이 없었는데, 손동창의 전시가 최초 생존작가의 전시라고 한다.

한국 문화를 선양하는 훌륭한 예술가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 손동창의 개인 전시관을 찾았다. 아파트를 전시관으로 만들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시된 작품에 압도당한다. 박물관을 옮겨 놓은 듯하다. ‘이렇게 굉장한 작품을 이렇게 많이…’

손동창은 대학시절부터 유달리 작품 만드는데 열정을 쏟아왔다. 당시는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도 하고 테모도 많이 하던 시절임에도 손동창은 어렵게 대학을 보내준 부모님 생각과 작품활동이 좋아 다른 학생들이 2~3개 작품을 만들 때 본인은 20여 개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졸업 후에도 모든 열정을 작품에만 쏟고 옆을 돌아보지 않아 지금의 위치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그의 작품은 전통자수에 기본을 두었지만 창작이고 예술이다. 옛날 전통 자수는 규방 문화로 여성들만의 내실에서의 작품이었지만 손동창은 이를 현대적인 소재와 기법으로, 또는 다른 장르와도 합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창작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작업을 ‘자수’가 아니라 ‘실그림(thread art)’이라고 부른다. 작은 틀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대학시절까지 수놓았던 자수, 즉 기존방식으로는 자기의 세계를, 전부 표현할 수 없음을 느끼고,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독특한 창작기법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내면적인 표현과 외면적 인상표현을 하는 예술가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 전통복식, 목공예, 불화, 인물화 등 기존의 수많은



전통예술을 차용하기도 하였지만, 한계에 부딪치자,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창작기법으로 한계를 벗어나 자신의 세계를 '실그림'이라는 무한한 예술적 표현의 영역으로 나아갔다.

그는 '나에게는 바늘은 봇이고 실은 물감이라고' 하면서 '실그림에는 한계가 없다'고 한다. 어떠한 것도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산윤복의 '미인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수월관음도' 등 옛 작품은 물론 현대의 '대모산길' '사계' 등이 실그림으로 거듭났다.

그의 자수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프레임이다. 작품과 하나가 되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혹단나무를 사서 직접 디자인하고 조각해서 만든다. 그리고 그 프레임에 흄을 파고 자수를 넣어 프레임 안에 있는 자수 작품과 통일된 프레임으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놀라울은 프레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장통도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고, 문짝에 형형색색의 자수를 끼워 넣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더 커지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는다. 장통을 열면 여인들의 화려하고 섬세한 내면의 감성을 색색의 수를 놓아 만든 복 주머니들, 노리개 등 매듭으로 만든 개인용 장신구들, 또 한쪽을 보면 조각조각에 수로 가득 채워진 보자기들, 매듭과 장신구로 만든 벽걸이 등 종류가 많다. 그의 작품들은 20여개의 contents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

기에 혼자서는 완성시킬 수 없다. 조각, 백골, 웃칠, 배접, 매듭, 장식, 염색 등의 50여명의 장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인들이 작가와 한마음이 되어 하나의 작업을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의 주제인 '융합과 나눔'처럼.

그의 예술관과 창작에 대한 생각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는 전문대학을 나와 학교에서 48년 간 교직생활을 하셨는데 '내 종교는 교육이다'라고 할 정도로 교육이념이 투철하였다.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자수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는 지금까지 작품만 만들었을 뿐 판매한 적이 없어 약 5000점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수서에 박물관을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람객이 주인에게 하고, 다음 전시를 기다리게 만드는 박물관을 열고 싶다고 한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되어 훌륭한 작품들을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의 꿈은 세계 각 나라에 한국예술을,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어우러지게 하는 그의 섬세한 작품이 파리 Guimet 미술관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라며,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기기를 바란다.

글. 김경은(영문79, 전총동창회 협집위원)

김미영 간호학과 교수가 추천하는 2015 이화 유망주

의료전문 변호사 이경희

‘나이팅게일’정신으로 인권 보호에 앞장, 후배에게 귀감되는 폭넓은 모델 기대



최근 동창회에서 만난 이경희 동창은 학부 때의 열정적인 모습 그대로여서 더욱 반기웠다. 20년 전인 1995년, 간호대학생들이 실습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경희 동창은 의료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폭넓은 간호활동을 추구하며 현실에 비추어진 의료계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을 즐겨하는 학생이었다.

이경희 동창은 2000년 본교 간호과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그 당시에 세상을 시끄럽게 한 일명 ‘보라매병원사건’이 발생하였다. 의료관행의 하나였던 보호자의 퇴원시켜달라는 요구를 들어 준 의사들 살인죄로 기소한 사건이어서 연명치료중단을 살인죄로 보게 된 시초가 된 사건이었다. 보라매병원사건으로 의료계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경희 동창 역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환자의 인권보호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



김미영

현재 이대 간호학과 부교수
대한간호협회 이사(교육위원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사
질적연구학회 회장
간호행정학회 연구정책이사

이경희

현재 법무법인 단천 변호사
안세병원 강남점,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송파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간호학과(00), 전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기 시작하였다.

이경희 동창은 이 사건에 선의의 피해자인 의료인들에게 법적 소양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못지않게 부당하게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아무런 정보 없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 및 가족들을 돋는 일이 중요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이 동창은 의료법률사무소 해율에 입사하여 의료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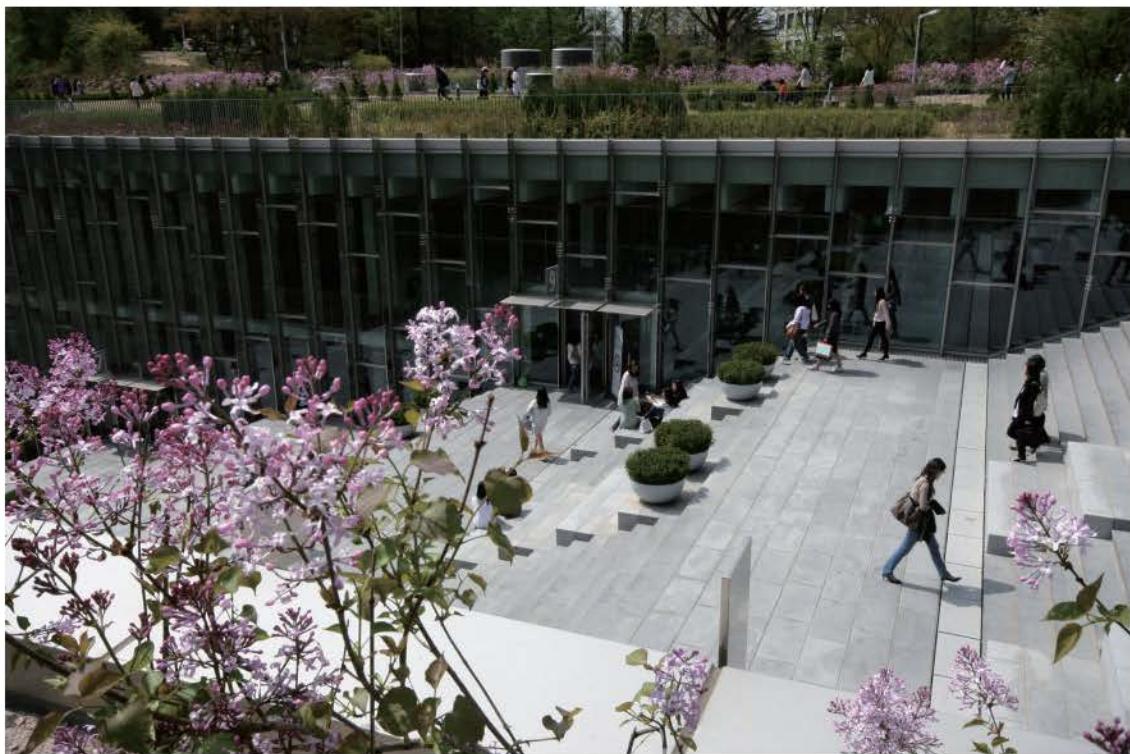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간호사로서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인이 되기 위하여 2010년에 영남대 로스쿨에 입학하였다. 2013년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법무법인 단천에서 의료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경희 동창은 의료변호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서 간호사들이 전인간호를 실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배들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고 있으며, 본교 로스쿨 법학전

분박사과정 생명의료법 전문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2014년 최근에는 신해철 사망 의료사고 보도의 패널로 하종대의 죄도 난마 725회(채널A)에 출연한 바 있으며,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안세병원 고문변호사, 송파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송파구 생명존중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이경희 동창은 앞으로도 예비간호사와 임상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환자 권익을 위해서 법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의료전담 변호사로서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의료사고를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경희 동창의 활동을 살펴볼 때, 그동안의 사명의식과 인권보호 정신이 사랑과 봉사의 뜻을 실천하는 나이팅게일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후배들에게 간호사의 확대된 좋은 역할 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르뽀

세계 최고 최초 지향, 우리 모교 이화여대 탐색 여덟 번째

마법의 첨단 그린 캠퍼스 ECC에서 하루 이화 새내기 놀라 외치다 ‘원더풀! 원더풀!’

개교 이래 국내외 최고, 최초를 지향하는 우리 모교 이화의 다양한 건물과 시설들을 시리즈로 집중 탐색하는 난을 마련하였다. 이 난을 통해 동창들이 모교를 찾아 자주 발걸음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지난 호에 이어 ‘이화의 자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첨단 지하 캠퍼스 ECC의 명소들을 소개한다. 특히 2015년도 신입생 ‘이화인’을 가상의 인물로 설정, 하루를 따라가 곳곳을 살펴본 탐색 일지다.] (편집자 주)

ECC 다목적홀에서 미래의 밑그림 그리다

새 학기, 새 삶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고 꿈에 그리던 이화 캠퍼스에서 드디어 나, '이화 인'은 발자국을 꾹 찍었다. 아, 신난다!

그런데 어떡하나. 설레고 벅찬 마음을 뒤로 하고 누구한테 대학생활을 물어봐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지. 학점 관리는 어찌 할 것이며,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디서 할까. 동아리 활동은 어떤 게 좋은지, 취업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궁금한 것 투성이다. 이때 마침 반가운 전단을 발견했다. '1학년 커리어 디자인 박람회'.

3월 개강에 맞춰 지난해부터 경력개발센터에서 1학년 새내기를 대상으로 마련한 '1학년 커리어 디자인 박람회'가 ECC 지하 4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간 ECC 지하 4층 다목적홀에 준비된 37개에 이르는 부스에서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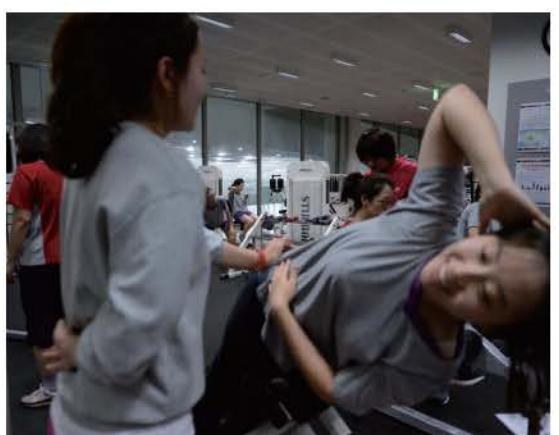
박람회에서는 이화 새내기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커리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재학생 선배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아리 활동, 국내외 인턴십, 교환학생, 창업 등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새내기들에게 진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었다. 비단 취업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에 이화인은 뿌듯했다.

신비로운 ECC 밸리(Valley)

처음 이화에 와서 이화인은 좌우로 펼쳐진 건물 사이로 마치 계곡처럼 보이는 길고 깊은 공간을 보고 한눈에 반했었다. 아침과 해질녘, 공부를 마치고 늦은 밤에 보는 ECC 전경이 시시각각 달라지며 신비롭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고, 벚꽃이 만개하면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된다. 친





구들이랑 셀카봉으로 사진 찍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이 나고 어깨가 들썩거린다.

오늘은 마침 벨리에서 총학생회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플래시몹, 풍선달기 같은 퍼포먼스에 시선이 멈췄다. 대학생이 되어 처음 맞는 투표에 이화인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리라 다짐했다.

'공강'을 유용하게 만든 아트하우스 모모

시간표를 겨미줄처럼 짜고 또 짰어도 '공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드디어 내가 대학생이 된 것인가. '공강'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실감하며 이 금쪽같은 시간을 어찌 보낼까 궁리하던 이화인은 ECC 지하 4층으로 향했다.

여기가 바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였다. 이곳은 국내 최초의 대학 내 상설 영화관으로 지난 2008년 개관 영화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형개봉관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자, 나도 공강을 유용하는 작품 한 편 감상하기로 하자!

'이화'의 패션 브랜드 '이필(EFFEL)'을 찾다
영화도 보고 수업도 듣고 박람회에 선거운동까지 오

늘은 그만 집에 돌아갈까 하던 차에 이화인의 눈에 뛸 듯 안 뛸 듯이 한쪽에 보이는 것이다.

그냥 보기엔 평범한 옷가게지만, 진열된 옷들을 살펴 보면 범상치가 않다. 동양화처럼 붓자국을 살린 셔츠, 털실과 단추를 추상화처럼 붙인 티셔츠 등 개성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이곳은 ECC와 함께 문을 연 패션 매장 '이필'이다.



'이필'은 패션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맡아온 이화여대 패션디자인연구소에서 만든 패션 브랜드다. 대학교에서 산학협력을 맺어 업체에 디자인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직접 의류매장을 열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간될 때마다 들려 새내기의 패션 감각을 세련미 넘치게 하고픈 생각이 들게 만든다.





독서실 겸한 아늑한 열람실에서 늦은 밤까지

이화인이 개인적으로 제일 맘에 들어 하고 자랑하고 싶은 곳이 열람실이다.

열람실에 들어가면 한쪽으로 예쁜 스탠드가 눈길을 끈다. 건물 전체 조도는 프랑스 기준에 맞춰 있어 밝고 환한 조명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부분 조명 스탠드야말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음은 물론이고 미적 감각까지 덧붙여 일종 아늑함을 더해 주었다. 신한은행에서 후원한 스탠드는 언제나 다른 학교 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선배의 귀띔에 이화인의 어깨가 으쓱해진다.

이밖에도 이화인이 찾고싶은 ECC의 명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피트니스 센터, 카페테리아, 공연장을 비롯해 이화인만의 핫스팟이 생기리라. 이제 이화인은 이대학보 3월 9일자에 실린 '밀줄 쪽! 별표 세 개! 새내기를 위한 이화탐구영역'에 실린 ECC 길 찾기를 펼쳐 본다.

ECC에서 편하게 길 찾기

재학생도 종종 길을 잃곤 하는 ECC는 겉보기에는 'ㄷ'자 모양이지만, 지하1층 내부는 'ㅁ'자 모양이다. 지하4층에 있는 편의시설의 위치가 헛갈려 자칫하다가는 빙글빙글 돌아 된다. ECC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이 홀수번호, 오른쪽이 짝수번호 게이트다.

1번 : 학생서비스센터

2번 : 열람실

3번 : 교보문고, 은행

4번 : 편의점, 피트니스 센터

(1번 게이트와 가까운 지하 4층에 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가 있으며, 정반대쪽 지하 4층에 공연 등이 자주 열리는 삼성홀이 있다.)

글. 박경희(신방 90, 이화동창 협집위원)



알아두면 유익해요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혜경 (의학)

이대 의과대학 교수,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대한의학회 고시위원,
대한내과학회 간행위원

58세 여자가 목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에 왔다. 한 달 전 종합검진 위내시경에서 역류성식도염이 있다고 들었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경과를 보던 중 최근 가래가 자꾸 목에 걸려있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가슴이 쓰리거나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은 없는데 과연 위식도역류질환이 맞을까요?



위식도역류질환이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먹는 것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병들이 많았는데, 어느새인가 영양 과다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영양과다 즉, 비만과 연관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종합검진을 받거나 TV 건강정보에서 흔히 접하게 되었다. 식도는 근육으로 된 대통모양의 관으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조임근이 있어서 위로 들어간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역류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위의 이상으로 산도가 높은 내용물이 위에서 식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슴 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이다.

가슴통증이나 목 불편감이 위식도역류질환이라구요?

이러한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이 넘어와 식도에 상처를 만들어 내시경으로 관찰할 때 눈으로 보이는 역류성식도염이 있는가 하면, 증상은 유발하지만 상처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내시경이 정상이지만 가슴이 쓰리고 산이 올라오는 증상은 약물 치료로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특히 여성에서 복에 이불감이 있거나 삼킬 때 불편하여 침을 자주 삼키는 증상, 가슴이 아프거나 만성 기침이 있는 경우, 위산 역류로 인하여 이러한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신불이 넘어오거나 가슴이 쓰린 증상이 없어도 생기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좋아 지지 않아 소화기내과로 오는 경우가 있다.

위내시경 이외에 검사할 방법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의 반 수에서 위내시경으로 식도염이 관찰되고 약 반 수는 정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산이 역류되어 증상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검사가 식도 산도검사입니다. 코를 통하여 가는 관을 식도로 넣어 직접 산도를 측정하여 역류가 일어나는지, 역류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되는지 등을 자세히 측정할 수 있다.

가슴이 아픈 것은 위식도역류질환이 대부분의 원인인가요?

가슴통증이 있는 세 명 중 한 명은 위식도역류질환 때문에 생기지만 드물게 협심증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폐의 이상으로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형적인 심장증상으로 인한 통증과는 달리 가슴이 우리하게 아픈 둔통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삼키기 곤란한 증상으로 심장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등도 위식도역류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 약물 처방을 받으면 좋아지실 수 있다. 아울러 운동이나 체중감량과 같은 장기간 생활습관 개선은 위식도역류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성인병 개선에 효과적이다.



2015 신입동창 환영회에서 장학금 수여 총 25명에게 전달

3월 14일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 삼성 교육문화회관 8층)에서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2015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약 220여 명의 선후배 동창들과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최경희 총장 등이 참석한 이 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이화의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이화의 정신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길 바란다'는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격려와 함께 이지영 대학원 심리학과 동창 등 총 25명의 일반 대학원 및 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정기임원회에서 2015 사업계획 및 정기총회 개최 논의

총동창회는 2월 11일과 3월 11일 정기 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

특히 정기총회를 위한 준비에 앞서 2015도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년에 제 4회째를 맞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성과와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소비자회를 정기총회에 맞춰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동창회 기금 마련 소바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동창회관(이화 삼성 교육문화회관 8층) 로비에서 총동창회 기금마련 소바자회가 열렸다. 소바자회에서는 동창들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특별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였으며 총회를 위해 모처럼 동창회관을 찾은 동창들에게 눈요기 거리를 안겨주었다.



선교부 소식

1박 2일 수련회 은혜롭게 마쳐

선교부가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가졌다.

2014년 선교부의 활동을 평가하고 2015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시간으로 수련회의 첫 날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친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였다. 초청 강사 인 장 향희 목사(일산 든든한 교회 담임목사), 송자경 음대 동창의 부군)는 자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었다.

점심 애찬 후 가진 각 과 및 대학 선교부장들의 모임에서 는 평가 및 계획 수립의 시간으로서 특별히 선교부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2018년을 위해 동창 선교사 간증집 출간 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둘째 날인 20일 오전에는 정기 기도회로 이화 동창 선교사들과 이화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 요르단에서 1년



사역을 마치고 들어온 박재린 선교사, 티벳의 강현숙 선교사, 베트남의 신 경희 선교사 등의 방문으로 풍성한 나눔의 선교보고도 있었다.

오후에는 특별 간증 집회로 박 리보가 사모(영문과 동창, 선한목자교회 유기성목사)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나누는 복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 사모는 예레미야애가 2:18-19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눈물을 쏟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것과 우리 자신의 의와 공로주의에 위험성을 전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사랑이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분으로 다니엘과 같이 매일 기도 습관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화의 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며, 뜨겁게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즉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다.





약학대학

회장/ 정용희(약학 75)

2년 만에 신입동창 환영회 가져

1월 6일 팔레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정기임원회 및 신년하례회가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화부의 신년 특송이 있었고 문화부, 사업부, 선교부, 약사부, 자료관리부, 지 역부, 학술부 등 각 부서와 주홍장학회, 약연후원회, 개국동문회가 올해의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올미년을 맞아 양띠회원의 케팅 및 오찬에 이어 서로 새해 덕담인사를 나누는 즐거운 자리였다.

2월 11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신입동창환영회에 임원 26명 신입동창 59명이 참석하였다.

제1부 환영회에서는 동창회와 학교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신입동창의 입회선서와 정용희 동창회장의 2년만의 신입동창을 환영하며 앞으로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나눔과 섬김의 이화정신의 실천에 힘써주기를 부탁하는 환영사, 이승진 약대학장의 6년제 이후 처음 배출되는 새내기들이 선배의 뒤를 이어 이화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는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이화인이 되겠다는 신입동창의 답사 후 제 2부에서는 '약사직능과 약국경영'의 주제로 박성순(26 회)부회장의 선배강의가 있었으며 OTC 핸드북을 신입동창에게 선물하였다.

제3부는 약학과 66회 창립총회로 회칙이 박수로 통과되었고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를 선출하였다.

국어국문과

회장/ 김충실(79)

'동창의 밤'에 100여 명 동창 참석

격년으로 개최하는 '국어국문학과 동창의 밤' 행사를 구립 1일 강남JS웨딩문화원 3층 연회실에서 개최하였다. 바쁜 가운데도 100여명이 넘는 동창들이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으며, 김혜원, 조민선 등 두 명의 재학생(3학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환갑과 칠순을 맞은 동창들이 모두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또한 서울공연예술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져 모두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아쉽게 모든 행사를 마치며 2년 후를 기약하였다.



물리학과

회장/ 김혜영(83)

과 창립 60주년 행사 준비 위한 기별간사모임

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가지는 기별간사모임을 통해 금년 5월에 있을 물리학과 창립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구립 1일 도곡동 타워팰리스 연회장에서 개최된 정기 기별간사모임은 물리학과 동창회 송년회를 겸하여 진행되었



고, 1968년 졸업생부터 2009년 졸업생까지 43명의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와 소식을 나누는 반가운 자리가 되었다.

특히 물리학과 창립 60주년 행사의 공동추진위원장인 김선주, 김현애(90) 동창이 준비한 민찬과 다과를 함께 나누며 자기소개와 더불어 노래와 경품추첨 등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곧 다가올 물리학과 창립 60주년 행사를 위해 동창회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불어불문학과

회장/ 강숙희(74)

간사모임에서 대천애육원 원생 학비 지원 결의

2월 11일 을미년 첫째 번 정기 아마간사모임이 한일관(압구정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숙희 회장의 간략한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동창기금을 이용하여 대천애육원을 돋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상당금을 지원하여 한국조리사관전문학교 이준열 보육원생을 돋기로 의

견을 모았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나 공부를 계속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원생의 학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의의를 두었다. 대천애육원은 불문학과 4회 김송자 동창(2013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자)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이다.

한편 구립 17일 싸늘하고도 청명한 날, 불문과 동창 연말 모임이 성북동 이계영(18회) 동창 자택에서 있었다. 동창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면서 화기애애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또한 2월 13일 원로 선배인 김정희(3회) 동창이 송실대 대학원 일어일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세월을 잊은 학문 열정에 대해 동창 모두 진심으로 감동 어린 축하를 보냈다.

사학과

회장/ 한혜련(75)

'사우회보' 제13호 발간 및 신년회 개최

2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사학과 동창회지인 '사우회보' 제13호를 발간하였다. '사우회보'는 회장 인사, 올해의 이화인 소감, 답사기, 동창들과의 만남, 박사학위 논문 소개, 동창사업 보고 등을싣고 있다.

2월 26일 석란에서 열린 신년회를 겸한 간사회에서 각 의 간사들은 덕담을 나누며 올 한해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한편 구립 26일 송년회를 겸한 간사회가 석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고문들이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여 후배 동창들을 격려하였고 지난 한 해동안의 사업들을 회고하며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섬유예술과

회장/ 김옥광(80)

'이화 섬유 예술전' 개최 및 기념책자 출판

2014년 10월 28일~ 11월 1일 까지 이화여대 아트센터에서 'Light of the Art'라는 주제로 '이화 섬유 예술전'을 열었다. 참가 작가는 김혜경, 김인숙, 이효별, 탁지숙, 이명님, 김혜순, 오복환, 이상복, 손정례, 윤귀영, 장영란, 박정례, 김옥광 외에 수십 명의 동창들이 함께 하였다.

1945년에 예림원에서 자수전공으로 시작한 섬유예술과는 2014년이 섬유예술과가 만들어진지가 70회 되는 감사의 해로, 동문전을 개최하면서 전시 도록을 기념책자로 출판하였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입체 조형물로서의 섬유예술 작품들을 출품자의 졸업 연대 순으로 분류하여 전시하였고, 전



시 기념 책에서도 세계의 섬유예술 작품들을 시대 별로 특성을 정리하여 기록함으로써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섬유예술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픈식은 김옥광 회장의 개회사, 김선희 선교부장의 감사기도, 오숙환 학장과 박선희학부장의 축사, 전시 지도와 후원을 한 손정례 교수의 격려사가 있었다. 회장단을 대표하여 이효범 동창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올해의 이화섬유예술상은 오시연 동창이 받았다.

식품영양학과

회장/ 최수주(75)

과 창립 50주년기념 행사 준비모임

2월 11일 뉴서울호텔에서 김숙희 전 이대 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신년하례 겸 간사 모임을 가지고 지난 1년간의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를 하였다.

특히 올해는 식품영양학과가 1965년 가정과에서 분리되어 창립된 지 50주년(가정과 창립 86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이 자리에서 창립 50주년기념행사준비를 의논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

리고 있다.

*준비모임(각기 기대포모임): 2015년 5월 29일(금) 이대동창의날 1시 생활관 508호

*식품영양학과 총동창회의 밤: 2015년 11월 6일(금) 6시 (장소는 추후 알림)

의류학과

회장/이명숙(75)

EFLCA(Ehwa Fashion Culture & Art) 창립전시회 개최

2014년 11월 20일~ 26일까지 아트 스페이스 호서에서 의류학과(의류직물학과) 동창회 주최로 회화, 금속공예, 섬유공예, 사진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창들의 작품들로 EFLCA(Ehwa Fashion Culture & Art) 창립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동창들의 재능을 발휘한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뜻 깊은 전시였다. 오프닝에는 많은 동창들과 최혜선, 홍나영, 이인성, 박민정, 김동은 교수 등도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 중 작품 판매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 좀 더 많은



동창들의 참여가 이어져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뜻을 모았다

유아교육과
회장/ 장태옥(87)
신년모임 및 신임 회장 선출

1월 9일을 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창회에서는 은사, 교수, 선후배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신년 모임을 가졌다.

유정옥 부회장(39기), 학교법인 은실학원 새싹유치원 원장)의 사회로 1부 행시가 시작되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 제창에 이어 윤명선 동창의 기도와 장태옥 회장(38기, 양재 천사 유치원 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신년하례에서는 이정환, 이은화 은시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은사들의 새해 덕담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부의 마지막은 10-50주년 졸업을 맞이하는 동창들과 신입 동창인

올해의 졸업생을 축하하는 순서가 마련되었다.

2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유아교육과 동창회의 여러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 사업보고, 회계보고가 있은 후 격년으로 진행되는 회장 선출시간을 가졌다. 오찬 후 3부는 박희경 총무(40기),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되었다. 행사는 자랑스런 모교,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들의 교가 제창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고 기념촬영 후 내년에도 소중한 동창들의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누었다.

영문학과
회장/ 이정숙(77)
영학회 미래 발전 위한 간사회의 가져

2월 11일 잠원동 JS가든에서 영학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수, 고문, 임원을 포함 15명이 모여 간사회의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영학회의 밤' 행사를 계속할





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지에 대한 후속 간담회를 3월 간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4년 10월 23일 추계강좌를 동창회관(이화삼성문화교육관) 806호에서 열었다. 110여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한국방송통신대 오종남 석좌교수의 '21세기 나의 인생/ 3번의 30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세계 속의 한국은 지금 어디쯤 있는가?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도자인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다.

조소과

회장/ 고혜숙(77)

총회 열어 다양한 안건 의결

2월 6일 북창동 '신라 다랑원'에서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2014년 결산보고 및 2015년도 사업계획을 토의했다. 조소과 동문전인 이화조각회의 활성화를 위해 격년제 였던 정기전을 매해 하기로 하고 은 작가를 위해 신입회비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참석한 모든 동창들이 서로 교류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

철학과

회장/ 임소연(87)

신. 구 동창회장단 인수인계 모임

1월 23일 신구 동창회장단의 인수인계 모임이 서초동 생어 거스틴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혜원 인문대 동창회장 을 비롯하여 독문 이정희, 시학 한혜련, 중문 이호정 회장 이 참석하여 이임하는 이영재 전임 동창회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임소연 신임 회장을 환영하였다.





남가주지회

회장/ 장계원(문정 76)

임원회의에서 2015 행사 논의, 5년 만에 동창 주소록 발간
2월 11일 2015년 남가주지회 임원 회의가 열렸다. 2015년 행사 계획과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행사로는 3월 제12회 총장배 골프대회, 4월 산타마리아 1일 관광, 5월 야유회, 10/30~11/2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애틀랜타 참가 및 11월 동창회보 발송, 12월 연말 송년회(월셔 컨트리클럽예정)등을 논의했다. 그 외 안건으로 동창회기금 \$100,000 운용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사회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1월 4일 건미회원 10명이 신년회를 기념하여 떡국 잔치와 윷놀이를 하며 선후배간 친목을 쌓았고 새해 소망과 계획, 그리고 건미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7일에는 간호학과 연례행사인 제 4회 '선후배 만남의 날'이 Garden Suite 호텔에서 열려 김혜숙(간호 72)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유임되었다.

한편 구립 14일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150여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1부 정기총회, 2부 만찬, 3부 이화인의 밤 순서로 진행되었다. 동창들이 숨은 기를 발휘해 고전무용, 볼룸, 라인 댄스 등의 공연을 펼치며 즐겼으며 raffle ticket 추첨을 통한 푸짐한 선물 정도 있었다. 또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동창주소록이 발간되어 2015년 동창회비를 납부한 참석자들에게 동창수첩과 함께 배부되었다.

뉴욕지회

회장/ 김기령(영문 81)

신년 하례식에서 미래 지회 활동 방향 설명

1월 17일, 신년 하례식에 3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1부에서는 김기령 회장의 지회소식과 모교소식, 특히 죄경회 총장의 사업계획을 들으며 뉴욕동창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2부는 최성남 이사장과 유덕향(약학72)지회연합회 이사가 북미주지회연합회의 역사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새로 지회에 등참한 박효진(피아노 07)동창 부부의 피아노 연주로 한층 신년 분위기를 돋워주었다. 2월 7일, 북부 뉴저지 지역모임이 조문경(영문 86)지역 대표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있었다. 이시은(체육 90)동창의 '호감 주는 여성리더'라는 주제 강연과 선후배간의 정다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또한 1월 13일 이화 -BergenPAC 파트너쉽 프로그램 협약식이 뉴저지 소재 버겐페(Bergen Performing Art Center)에서 있었다. 버겐페 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협약식에서 뉴욕 임원과 모교 신혜빈(영문 12), 김수인(경제 12)인턴들이 선후배간 인사를 나눈 소중한 자리였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15일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둠기를 목적으로 하는 알제단(설립자 이숙녀/ 교심 66)의 취지를 한국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김옥자(생미 69)동창의 작품 전시를 모교 ECC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열었고, 구립 3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2014 연례만찬 평가회 겸 임원 이사 간담회를 각각 가졌다.



대구지회

회장/ 최정숙(영문 81)

2015 신임 회장단 취임식

2월 27일 프린스 호텔에서 대구지회 회장단 취임식이 열렸다. 전임 남성희(신방 78)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으로 최정숙(영문 81)동창이 선출되었다.

수석 부회장 김명옥(서양화 85), 차석 부회장 아동광(영문 82), 총무 이영미(서양화 82), 재무 차명희(정외 96)동창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미네소타지회

회장/ 김성숙(사회 85)

2015년 미네소타 첫 이화모임

2월 21일 한현숙 동창 자택에서 올해 첫 미네소타지회 동창모임이 있었다. 박은경 동창이 미네소타 청소년 설문조사 내용을 준비해 와 청소년을 둔 동창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선물들을 준비해 온 한진혜 동창 덕분에 냉고를 통해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 5월 중 미네소타주에서 4일간 열리게 될 한국문화



를 알리는 '민속제전' 행사 전시부스에 저희 동창들이 봉사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푸짐한 한국음식들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는 일자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부산지회

회장/ 심상애(사회 75)

성황리에 재부 '이화인의 밤' 행사 열어

지회가 주최하는 '2014 이화인의 밤' 행사가 구립 2일 오후 6시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12월 첫째 화요일에 열리는 재부 '이화인의 밤'은 1976년 이래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최경희 모교 총장과 오진경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고,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170여명의 재부 동창들이 모여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1부에서는 심상애 회장의 인사말과 최경희(파교 85) 모교 총장의 축사에 이어, 부산지역 여러 동창들의 축하 인사 말이 동영상으로 상영되었다. 2부에서는 동창들의 장기자

랑과 경품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교가제창을 끝으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 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화동창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동창들의 취미동아리 만들기도 계속되고 있다.

샌프란지회

회장/ 제갈숙경(관현악 79)

우리 차문화 예절 다례를 배우다

2월 7일 33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정기모임 후 이영미 명원문화재단(CA & AZ) 지부 원장에게 차 마시는 예절, 다례와 다식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영미 원장이 준비한 연잎차와 다식, 다기 일체와 동창회가 마련한 점심, 떡, 과일 등과 함께 장소를 제공한 집 주인 곽정연 동창이 호박죽을 즉석에서 만들어 동창들을 대접하여 지회 동창들은 모두 연잎차와 다식을 직접 만들어 음미해 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첫 모임을 곽정연 동창 자택에서 3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새해 연중행사를 계획했다. 5월 모교 방문과 모국 방문 여행에 관한 공고가



있었고, 정기모임 후 육놀이를 하면서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4년 마지막 정기모임 및 연말 파티가 오클랜드에 소재한 고기타임에서 있었다. 4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때 공연했던 놀부전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동창들을 위해 재공연을 하였고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세인트루이스지회

회장/ 정선주(성악 68)

모교에서 보내준 선물에 감사

2014년을 보내는 정기모임이 구립 17일 이화 사위들도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의 의사상'을 받은 선제숙 동창과 딸 김주혜 양이 'Swarthmore College'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한 최혜영(생미 86)동창을 함께 축하하며 지회 보고, 정선주 회장의 제 13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참석 보고를 하였고 금년 아틀랜타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소개가 있었다. 모교에서 보낸 수첩, 달력, 이화 소개, 의대 마곡병원소개, 새 기숙사 소개 등이 담긴 품플



렛을 받고 모교의 따뜻한 배려에 모두들 감사하였다.

앞으로도 지회는 동창 친목을 우선하며 모교가 세계 속의 이화여대로 우뚝서기를 기도하며 적극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시애틀지회

회장/ 홍성희(악학 68)

새 회장단, 단합된 지회 만들기 강조



2015년 첫 총회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홍성희 회장의 새해인사 후 구 회장단과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2015년의 행사일정을 발표하였다. 새 회장단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선후배의 관계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응하여 단단히 단합된 지회로 이끌어 갈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구립 7일 연말파티를 Lake Union에서 Argosy 크루즈(일명: 크리스마스 쿠르wm)를 타고 시애틀, 워싱턴 해안을 들면서 회장의 임기를 끝마무리하는 인사를 시작으로 지회 합창단이 이끄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59명이 참석하여 오색찬란하게 장

식된 많은 보트들이 달빛에 어울려져 가지각색의 형상으로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갑오년을 마무리하였다.

시드니지회

회장/ 김봉희(서양화 74)

달력, 이화수첩, 이화동창회보 등을 배포

새 임원진 선출 등 2015년 지회 첫 모임 가져 2월 14일 신임 회장 김봉희(서양화 74)동창 자택에서 23명의 동창이 모여 푸짐한 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총동창회에서 보내준 달력, 이화수첩, 이화동창회보 등을 배포했다. 특별히 지회 초대 회장인 정옥희(영문 55) 전 회장이 오랜만에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전임 임원진에게 감사의 선물증정과 새 임원진에 회장 김봉희, 총무 정혜원(시학 86), 회계 이선아(국악 88)동창을 선임하였다.

시드니지회는 매년 4회 분기별로 모이며 타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동창들이 서로 의지하고 위로와 격려의 장이 되며 열심히 교류하는 배꽃들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1월 30일~31일까지 최신 공연장 Chatswood Concourse에서 예술감독 안애순 동창과 이화 동창 단원

들이 포함된 국립현대무용단의 시드니 방문 공연에 저희 동창들이 관람하며 격려하였다.

애틀랜타지회

회장/ 김정희(약학 79)

회장 연임과 설맞이 모임

1월 신년모임은 성정순 교수의 기도로 시작하여 결산보고와 김정희 회장의 연임 인사에 이어 신년계획발표와 새 임원 소개가 있었다.

2월 모임은 구정맞이 모임으로 한복을 곱게 입고 온 오은정, 김난경, 김복희, 김정희 동창과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새겨진 반 두루마기를 입고온 정호문 화백으로 더욱 설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정애(영문 59), 김자영(제약 86) 신입회원 환영, 김혜경 동창의 생일 축하와 선물 증정이 있었다.

또한 2월 13일 한인회관 개관식에 김정희 회장이 여성단체 대표로 참석해 테이프컷팅을 하였다.

한편 구립 14일 최복희(성악 73)동창 자택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1년간 사랑과 희생으로 함께 한 동창들에게 회



장과 입원들의 감사 인사와 장기자랑, 기념품으로 이화달
력, 동창회 수첩 등을 나누고 '이화여대 만세' 삼창으로 송
년모임을 마쳤다

에드몬톤지회
회장/ 조용옥(국문 77)
풍요로운 2015년을 기대



2월 7일 2015 첫 모임을 조용옥 회장 자택에서 시작, 반갑
게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며
학창 시절 얘기로 이화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식사
후 강백희 총무의 일년 결산 보고와 새 회장 선출 인건이
이어졌다.

새 회장으로 다시 2년을 봉사할 조용옥(국문 77)동창과
총무에 김윤희(파이노 01)동창이 선임되었다. 새해 애틀랜
타에서 개최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여와 더욱 애교
심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추운 날씨에 많은 눈
때문에 얼어붙은 미끄러운 길을 마다 않고 함께 참석한 이
화 사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록키산 벤프와
쟈스퍼에 쌓인 눈처럼 풍요로운 2015년이 되기를 바라며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다.

울산지회

회장/ 최의숙(의학 77)

지회 송년 모임에서 모교 후원금 약정

구립 19일 롯데 호텔에서 지회 송년 모임을 개최하였다. 60
년대 졸업한 대선배 부터 90년대 이후 졸업한 후배 등 30
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고 특히 최경희 총장, 오진경 대
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
애라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최의숙 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최경희 총장의 '모교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과 영상을 상영, 오진경 대외협력처장의 새 기숙사 건
립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 상황 등이 참석 동창들에게 알
려졌다. 지회 동창들은 다시 한번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느끼며 기숙사 증축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후원금을 약정하고 후원금 약정서를
총장께 전달하였다. 오찬 후 홍겨운 여홍과 행운권 추첨
등으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모임은 모교 총
장의 참석으로 새삼 이화인임에 뿌듯함을 느끼며 모교에
좀 더 관심이 깊어진 훈훈한 송년회였다.





위싱턴디씨지회

회장/ 김지완(도서관 89)

신임 이사장 선출 및 모교 기숙사 기금 전달 결의

1월 이사회 모임은 2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인 신임 이사장 선출이 있었고 신임 이사장으로 39대 지회장을 역임하였던 오혜경(영문 72)동창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이날 2015년도 동창회의 활동 방안 등을 결정하였는데, 그중 모교 신축 기숙사 건립 기금 기부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위싱턴 디씨 지회'이름으로 1만 불을 모교 측에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문화을 나누는 모임으로 만나오던 동호회 모임이 2015년부터는 새로운 명칭 '이화 문화 클럽'으로 거듭나면서 매 달 한 번씩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모임마다 새로운 선후 배가 참석하여 식사도 같이 하고 목도리 강습과 문학세계를 넓히는 특강시간도 가졌다.

자카르타지회

회장/ 강혜경(간호 77)

2015년도 지회 모임 일정 확정

2015년 지회 일정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구립 11일 아랑22에서 총 12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송년회 겸 정기모임을 가졌다. 2015년도 식사당번비가 50만루피아로 변경되었고 이정아(철학 90)동창이 새 총무로 봉사하기로 했으며 4월 16일(목), 8월 20일(목), 11월 19일(목)로 지회 모임 일정을 정했다. 신입회원으로 김민자(기악 03)동창이 입회하였다.



청주지회

회장/ 윤미숙(들리 83)

2년간 봉사한 전임 회장단 1년 더 봉사

2014년 회계보고 및 결산과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임을 위해 구립 15일 청주 라마다 호텔 중식당에서 송년모임 겸 간사모임을 가졌다. 2년간 봉사한 전임 회장단이 2015년 1년간 더 맡아주기로 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클리블랜드지회

회장/ 김영미(영교 82)

'이화만남' 2015 주요행사 계획 세워

1974년에 처음 설립한 지회는 현재 클리블랜드에 거주하는 약 70여 명의 동창들 중 약 2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이화 만남'이라는 명칭으로 지회 회원들이 모여 친교와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동창 가족들의 경조사를 돋고 동창회 행사를 의논하고 있다. 지회에서 기금을 모아 지역 사회 봉사를 하며 이화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1월 31일 김정진 동창 자택에 모여 연초 행사인 윷놀이를 하며 2015년도 이화만남의 활동 계획을 하였다. 이화만남의 2015 주요 행사로는 3월 이화의 후배들이 교환학생으

로 있는 Baldwin Wallace 대학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을 격려하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오찬을 나누고, 추석 때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하는 경노잔치가 있으며 11월에는 부부 동반으로 연례 만찬을 가진다.

토론토지회

회장/ 흥현정(피아노 82)

지회 위해 최선 다해 노력하는 한 해 되길 다짐

1월 15일 첫 임원회의로 새해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임원 회의에서 올 한 해 동안 여러가지 행사와 계획들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으며, 서로 협조하고 즐겁게 지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다짐하며 회의를 마쳤다.

2월 15일에는 예배모임인 햅볼회모임이 있었으며 25명의 동창들이 조화정(불문 77)동창 자택에 모여 한명실(사생 71) 목사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는 하나 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불들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는 귀



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포틀랜드지회

회장/ 김미진(도예 79)

지회를 체계 있게 활성화시키는 방안 논의
플로리다에서 2년 전에 지회로 온 조병삼(국문 67)동창이
자랑이를 의지하고 나와 모두 환영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던
연말모임은 김미진 회장의 과일 후원으로 꽃과 과일향
기가 가득했고 인건으로 지회를 좀 더 체계 있게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창 개인의 기쁨과 즐픔을
함께 나누고 동창들의 변동사항을 빠르게 회장단과 연락
하자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항상 동창들과 긴밀한 연

락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PSU(포틀랜드 대학)에 교환교수로 온 유수옥(유교 77) 전주 우석대 교수가 여행으로 부득이 불참, 다음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전언을 보내와 회원들은 모국 소식 등 좋은 얘기를 기대하며 다음 모임을 MAY DAY에 맞춰 5월에 만나기로 하고 모임을 마쳤다.

하와이지회

회장/ 오해숙(사회 79)

하와이 간호대학 한국어 의료 종사자 장학금 지급

2월 10일 하와이 대학교에서 있었던 University of Hawaii Scholarship Celebration 만찬에 오해숙 회장과 이상희(불문 90) 총무가 하와이지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지난 몇 년 간 지회는 하와이대학과 간호대학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생 한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언어로 인해 고생하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인 의료 종사자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픈 마음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립 6일 이덕희(사회 63)동창 자택에서 겨울 모임을 가졌



다. 비록 적은 숫자의 동창들이 참석했지만 점심식사를 하며 함께 한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명수연(성 악 93)동창의 감동적인 독창 후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해 각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 경매를 하여 기금 마련에 일조하였다.

휴스턴지회

회장/ 백화정(교심 87)

15년 째 계속하는 한인노인회관 '떡국잔치'

1월 모임은 김성혜(도예 84) 동창 자택에서 떡국과 빈대떡 등을 먹으며 새해 안녕을 기원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2월에는 설을 맞아 15년 째 계속하고 있는 떡국잔치를 한인노인회관에서 120여명의 노인 회원들을 모시고 진행하였다. 많은 동창들이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은 동창들은 현금으로 기부하는 형식으로 올해도 떡만두국, 잡채, 전,



나물 등 푸짐한 음식들로 한인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다. 한편 12월 첫 주에 연말모임을 겸한 지회 총회를 영국식 티룸에서 개최하였다. 2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회계보고, 지회연합회 총회보고와 변경된 임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센스있는 의상으로 연말 분위기를 한껏 돋우어준 유미화(영문 66), 문희채(영문 72)동창을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였다.

2015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화 동창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삼만원)는 지로용지 또는 아래 계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2015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가족환영행사 개최

3,470명의 이화인을 맞이하는 2015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월 27일 오전 10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새로운 이화가족을 맞이한 최경희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이화를 선택했고 이화도 여러분을 선택했다. 학교생활이 시작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바로 ‘혁신 이화’의 주인공이자 새로운 시대의 인재로서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대학생이자, 여대생, 이화여대생이 되는 새내기들을 위한 조언으로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매진할 것, 날로 발전하며 새로워질 것,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학생활을 해 나갈 것, 다양한 시도를 하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모교 남성교수증창단의 축가 및 이화브라스앙상블의 축주도 펼쳐졌다. ‘백설공주와 오빠들’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본교 남성교수증창단은 개

그콘서트를 페리디한 공연으로 신입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화브라스앙상블은 Instant Concert를 연주해 새내기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신입생 대표로 최우수입학 장학생으로 사범대학을 입학한 김그린씨와 EGPP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스크랜튼대학에 입학한 태국의 유유엔 포차닛(Yooyuen Porchanit)씨가 선서를 했다.

한편, 입학식 직후에는 신입생을 위한 환영행사인 ‘Welcome to Ewha’와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이화사랑 프로그램 ‘Welcome to the Ewha Family’이 모교 대강당과 ECC 삼성홀에서 동시에 열렸다.

학생처에서 마련한 ‘Welcome to Ewha’ 신입생 환영행사는 KBS 박은영 아나운서(무용 05)의 사회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게스트로 나와 새내기들에게 선배들의 학교생활 노하우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비결 등을 전수했다. 올해는 나승연(불문 95) 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이 특별게스트로 깜짝 등장해 “이화에 입학한 것은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신입생들을 축하했다.

특히 올해에는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화사랑 프로



그럼, 'Welcome to the Ewha Family' 행사가 새롭게 마련 돼 축하분위기를 고조시켰다. ECC 삼성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01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를 비롯한 가족 700여 명을 초청해 이화의 비전과 발전계획, 우수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희 총장은 신입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 이화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고, '아빠와 함께하는 산행' 등 다양한 학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총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부모를 위한 깜짝 이벤트로 손자애·황수경 동창 등 이화의 주요 동창들의 환영인사 영상과 신입생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내는 감사 영상 편지가 상영돼 참석한 신입생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뜻한 기슴을 지난 리더가 될 것, 마지막으로 결연한 의지와 희망의 이화인으로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EGPP 장학생 6명을 포함, 태국, 중국, 러시아 등 총 23명의 외국 국적 학생들이 모교 학부 졸업장을 받았다. 학부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1세, 최고령자는 만 44세였다. 수석 졸업자는 각 단과대학별로 1명씩 총 11명이 선정됐으며, 귀순 북한동포 3명과 지체 및 청각장애를 가진 재학생 4명도 영예로운 학부 졸업장을 받았다.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월 23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2,334명, 석사 1,131명, 박사 135명 등 총 3,6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은 주요 내외빈과 졸업생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서혁 교무처장의 사회로 총장 말씀, 학위수여, 축주, 교가 제창, 양명수 교목실장의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경희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도전과 혁신의 이화인이 되어 창의와 열정의 잎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과 신실한 열매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최경희 총장은 세상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이화인으로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여성이 될 것,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과 헌신의 이화인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따

의학교육 평가인증 최상 등급 획득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 국가고시 및 시험, 전원 합격
의학전문대학원이 201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최상의 결과인 '6년 인증기간'을 획득했다. 모교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전국 총 13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로 진행된 평가결과, 모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수행을 위해 노력했으며, 평가인증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본교 의학전문대학원은 평가인증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와 보직자를 중심으로 2년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왔으며, 현장방문 평가에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의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보직교수, 학생 대표단, 평교수 대표단, 행정직원들이 모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에는 졸업예정자 70명 전원은 물론 기존의 의전원 재수생 2명과 과거 의대 졸업생 1명이 모두 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이 지난해(96.1%) 대비 크게 올랐다. 본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007년 첫 신입생을 받은 이래 통합과정 확대, 임상조기교육과 임상실습 강화, 의료인 문학 과정인 '환자·의사·사회(PDS)과정' 실시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힘써왔다. 올해 국가시험 합격률 100%의 성과는 이러한 의전원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모교 약학대학도 올해 약사 국가시험에서 합격률 100%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월23일

(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진 2015년도 제 66회 약사 국가시험에서는 전국 35개 약학대학에서 1,716명이 응시했으며, 모교는 시험에 응시한 졸업예정자 123명이 전원 합격했다. 이번 약사 국가시험은 6년제 약학대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배출되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으로, 모교 약학대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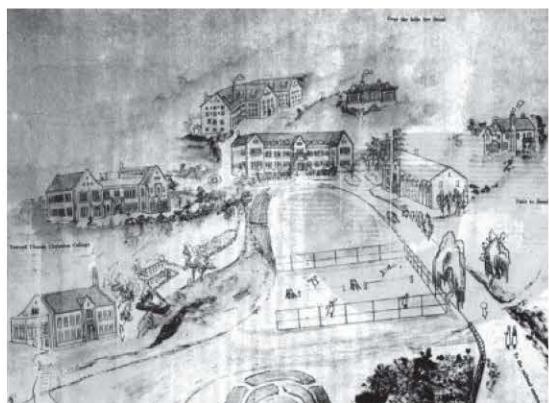
194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약학대학 중 하나인 모교 약학대학은 2011년 처음으로 6년제 신입생을 받은 이래,

학제 개편으로 약학실무 실습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졸업하기 전 1년 간 실제 업무에 가까운 실습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국가시험 응시자 전원 합격의 성과는 진취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진 및 학생의 노력이 어우러진 의미있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교 '신촌캠퍼스시대' 80주년

2015년은 이화가 신촌캠퍼스로 이전한지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화는 1935년 3월 9일 정동캠퍼스에서 새로운 보금자리인 신촌캠퍼스로 이전했다. 3월 9일은 이화학당 제4대 당장(1907~1921)을 지낸 룰루 E. 프라이(Lulu E. Frey) 선생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화학당 대학과를 설립해 이 땅의 여성교육에 새 장을 연 프라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선생의 생일을 신촌캠퍼스 이전일로 정했다.

신촌캠퍼스로의 이전은 단순한 공간 확장의 의미를 넘어 이화가 대학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1886년 한국 최초의 여학교로 정동에서 출발한 이화는 1904년 중등과, 1908년 보통과·고등과에 이어 1910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를 창설했다. 이에 이화는 여자종합대학으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캠퍼스 조성에 착수했다.

신촌캠퍼스로의 이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의 결실이었다. 이화는 1918년 신촌을 새 캠퍼스 부지로 결정했으나, 구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1924년, 미국의 독지가인 헤이워드 그레이(Hayward Gray) 부인이 부지 구입자금을 기부하면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후 이화를 향한 종파와 국경을 초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모교 6대 교장(1922~1939) 앤리스 R.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 선생은 인식년에도 미국과 유럽을 돌며 신촌캠퍼스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이어 나갔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만여 통의 편지를 보내 이화를 위한 모금을 호소했다. 국내에서는 전국의 교회가 '이화주일'을 정해 이화 신촌캠퍼스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였고, 금반지와 금시계를 흔쾌히 내놓는 부인들도 있었다. 국내외에서 진행된 활발한 모금활동의 결과로 1933년 3월, 이화는 신촌 캠퍼스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본관을 시작으로 대학원관과 중강당(구 음악관), 체육관

A동(구 체육관) 등 총 7개의 건물이 차례로 지어졌다. 본관, 음악관, 체육관 건물 완공 후 신촌캠퍼스로의 이전 일이 결정됐다. 프라이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1935년 3월 9일 10시, 45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정동의 프라이홀 앞에서 49년간의 정든 구교사와 고별식을 마치고 신촌의 새 캠퍼스를 향해 2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로써 신촌캠퍼스 시대가 열렸고, 많은 이들이 한국 최초의 여자대학 캠퍼스의 탄생을 축하했다.

캠퍼스 이전 후에도 공사는 한동안 계속됐다. 1936년 5월 31일, 대학원별관(구 보육관), 영학관, 가사실습소(1950년 소실), 진선미관 봉헌식을 끝으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공사가 마무리 됐다.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 이 나라 여성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단단한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이화역사관(관장/ 함동주 교수)에서는 오는 5월, 신촌캠퍼스 이전을 위해 현신한 이화의 스승들과 선배들의 뜻을 기리는 신촌 캠퍼스 이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글. 이대 기획처 홍보팀(총동창회 홍보부 정리)

신금례(서양 49)

서양학과 1회 졸업생으로 한국여류화가회 회장, 오산대 학장을 역임한 신금례 동창이 구립 24일~ 1월 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미술세계 제1, 2전시장에서 '미수(米壽) 기념 개인전을 열었다.

김정희(불문 63)

2월 13일 숭실대 대학원 일어일문학과에서 아쿠티기와 류 노스케 문학에 나타난 소재활용 방법 연구라는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동창은 1999년 한·일 문화 교류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숭실대 겸임 교수를 역임했다.

김선주(불문 65)

윤동주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이화문학상, 최우수작가상, 한국문학백년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 김선주 동창이 2015년 3월부터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회장 재선에 당선되어 취임하였다. (사)한국여성문학인회 부이사장에도 선임되었다.

김광자(불문 66)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회장을 2010년부터지 5년간 역임한 김 동창이 한국일보에 2014년도 '올해의 인물 20인'으로 선정되었다. 미국 워싱턴 근교 훼어팩스 정부청사 내에 '위안부기림비평화가든'을 설치하고 2014년 5월 30일 제막식을 가져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김정수(무용 70)

1월 22일 단국대 김정수 명예교수(이대 무용과 동창회장)가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한국무용협회가 주관한 '무용 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무용 예술가상'은 무용계에서는 매우 역사성이 깊은 상이다.

박정혜(체육 71)

시애틀 심포니의 Chorale 멤버인 박 동창은 2014년 12월에 헨델 메시아, 2015년 1월에는 베토벤 심포니 9번, 2월 12일

~14일까지 Berlioz Romeo et Juliette 을 Benaroya 홀에서 공연했다.

선재숙(의대 72)

세인트루이스 재향군인 병원 재활의학과과장인 선재숙 동창이(최초 전공) 세인트 루이스 지역 재향 군인 병원 550 여명 의사 중 1위로 선정되어 2014년 '올해의 의사상'을 받았다. 2012년에는 미국 의사들 중 'Best Doctor'로 뽑히기도 했었다.

김영애(간호 74)

1월 17일 미국 남가주에서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미주연합회 회원인 김 동창의 수필집 북시인회가 열렸다. 김동창은 제2수필집 '사각자대의 앵무새'로 2014년 미주펜문화상과 한국수필 해외작가상 두 개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서정숙(약학 74)

1월 3일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이대 약대 외래교수인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감사로 선임되었다. 2006년부터 4년간 제 17대 서울시의회 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정명희(제약 75)

전 과학기술원(KIST) 유럽 과학고문인 정 동창이 2월 10일 기초과학연구원(IBS) 제 2대 감사로 선임되었다. 정 동창은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연구센터장, 연구정책부장을 역임하였다.

황현숙(사생 75)

황 동창은 미국 유티대학교 사회사업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사마리탄 병원소속 정신과의 한부서인 아시안 상담소에서 소장으로 18년째 근무하고 있다. 아시안 상담소는 1년에 400명의 환자에게 이중 언어로 정신 상담을 하고 있다.

김정혜(의학 77)

전 화명일신기독병원장인 김 동창이 의료선교를 위해 2월

미얀마 양곤의 '일신 workers woman's 병원'의 초대원장으로 부임하여 의료선교사로서 진료와 봉사를 하게 되었다.

임정희(가정관리 79)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천해 온 임 동창이 대통령직속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함계선(피아노 79)

'잊는다는 것, 잊는다는 것'이라는 수필작품으로 워싱턴 신인 문학상 수필부문 가작을 수상하였다.

이선희(조소 81)

조소과 동창회 부회장인 이 동창이 2015년 제 25대 광장 조각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광장조각회는 1977년 창립된 시형조각회와 후기조각회 통합으로 이루어져 매년 국내 외 50여회 정기전을 개최한 유일한 조각회이다.

김윤영(조소 81)

구립 12일 김종영미술관에서 주최한 제13회 김종영 조각상을 수상하였다.

신은희(도예 83)

미국 Seaboard Foods(www.Seaboardfoods.com)에서 19년째 아시아·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은성 International이라는 법인이 있다.

남연숙(도예 86)

제10회를 맞는 Guam 여성 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는 각기 다른 나라 여성들의 작품으로 나산 인휘너티 전시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경희(조소 86)

Seoul Art Show 개인전을 구립 25일~29일까지 코엑스 1층에서 가졌다.

황인경(과교 86)

전 한국여성유권자 서울 연맹 회장인 황 동창이 임기 3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제 17대 감사로 선임되었다. 황 동창은 한민족어린나돕기네트워크, 한민족복지재단, KOICA 해외봉사단 등에서 활동해왔다.

김선영(조소 89)

갤러리 WE에서 구립 2일~12일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윤재연(영문 90)

태영레저 대표이사인 윤 동창이 태영그룹 래저부문 계열사인 '블루원'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었다. 윤 동창은 윤 세영 태영그룹 회장의 차녀이다.

이소연(정외 90)

현대자동차 그룹인 현대캐피탈 리스크관리실장인 이 동창이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다.

이정원(국문 92)

현대자동차 그룹인 현대캐피탈 디자인랩실장인 이 동창이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다.

이희준(약학 92)

2014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대본공모에서 뮤지컬 대본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인 창작뮤지컬 '런웨이 비트'를 '극본 이희준, 연출 김운기(이희준 동창 부군)'로 1월 31일~2월 8일 대학로 아르코예술대극장에서 공연하였다.

김종숙(사학 93)

'오월과 유월 사이'라는 소설로 워싱턴 신인 문학상 단편 소설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강소영(환경 01)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인 강 동창이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2년 연속 등재되었다. 강 동창은 환경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저널에 9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해왔다.

윤향구(동양화 67), 유태정(교육심리 67), 이혜연(기악 71), 정미호(섬유예술 84), 남시은(섬유예술 88), Seattle Convention Center에서 2014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그룹 전시회를 가졌다.

황지선(조소 74), 심부섭(조소 76), 고혜숙(조소 77), 신은숙(조소 79), 호해란(조소 88), 김정연(조소 89), 최은정(조소 97),

신은숙 동창이 기획하여 구립 3일~9일 유나이티드갤러리에서 '아시아 조각의 미래'를 주제로 단체그룹전을 가졌다.

김선미, 류지나, 이채현, 최은경, 호해란, 홍미영(조소 88)

'Whisper-in winter' 그룹전을 구립 24일~31일 일산호수갤러리에서 열었다.

신입동창 명단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강민경 강민정 강소연 강슬이 강필현 김경희
김미현 김민지 김소정 김수민 김수연 김수진
김지영 김지령 김지현 김현지 김혜진
김희연 류현정 민빛나 민유정 박세영 박이슬
박진서 박혜원 배민영 배온유 서은자 손에슬
송재연 송주영 신연수 안희진 양수현 육정원
이수형 이 육 이은정 이주연 이진경 이진솔
이행경 임솔이 장미나 장세연 전소연 정소을
정여진 정예림 정지연 조분경 조서현 조정환
조지현 최민복 최주희 황수정

ALIMARDANIAN NASTARAN

SRIBUNPOTPATTANA LAPASSANAN

Yang Si Min Zhou Shijia 송기쁨 유가영

이도은 최아란 최은실 흥새미 황혜린 황희진
종어증문학전공

강수정 강진영 고민지 고은미 구슬기 권현수
김남희 김서연 김언진 김에리나 김이나 김주경
문다슬 박민서 박여빈 박정은 박준은 배주영
백승민 송현지 신채은 심소리 안윤경 오수영
오자연 오지윤 온누리 원희연 이고운 이민지
이서희 이정윤 이주현 이지하 임준희 장수진
장은진 장지영 전민경 전인희 전하연 정아름
정현정 정혜선 조수희 조영현 조은혜 최승주
최은실 하수빈 허지원 현지연 황경미 황선경

Lin Cheuk Yuen 김경민 부아름 이고은 이현빈
영어영문학전공

강소현 강승이 강승민 강지숙 고민주 구다혜
구윤정 권석원 김나영 김나정 김미연 김민아
김민정 김보경 김보연 김성은 김수강 김수경
김수진 김유경 김은우 김지연 김지현 김하림
김현정 김효천 김후형 노현진 박가나 박서경
박세라 박소연 박재빈 배윤정 서지민 소진영
손기쁨 송무빈 송유진 신윤정 안정연 염은샘
오상희 오지윤 윤보영 이경희 이민아 이수연
이수지 이영혜 이예지 이윤주 이주영 이주현
이찬양 이하림 장소영 전재은 정나영 정서일

정윤영 정지민 조경채 조희중 지희연 채민정
최은민 최해랑 최효진 하수정 하지혜 하여규
허지원 현진의 흥에리나 흥주연 흥태영 황윤혜
PAN HONGHONG 김연진 박성혜 박소영
박주영 오유진 윤연수 이상아 이연정 이유경
정지연 호정은

불어불문학전공

강민경 강상이 강소연 강연주 강현아 공호진
김기영 김나경 김다님 김동미 김수지 김수현
김정아 김주리 노윤진 도주현 마한나 문선희
박소연 박은비 박주영 양소영 오유미 이다영
이지은 임다정 정성희 정효정 조문숙 채지희
천기현 최혜진 피성연 황소희 황수연 강지숙
문화경 방소연 이수진 황연수

독어독문학전공

곽남희 김예린 김윤진 김은우 김지강 김혜진
박옥동 박정은 안소현 안정인 오유진 원지영
윤그라미 이샛별 이수아 이 슬 이영민 이지연
이지영 이지혜 이현빈 임영주 정성은 조윤아
주지민 황연수

사학전공

강현진 김단비 김유정 김은아 김지연 김현정
김현지 김화니 박민선 박선영 박유영 배주현
신혜연 오민주 오수진 우희원 이민주 조혜정
최수정 흥석영 정유진 최경원

철학전공

고병진 김윤주 김지영 김현희 명진아 문정은
박소현 박이림 박혜원 양서연 이성은 이은서
이혜원 전려야 정치영 조아해 지윤옥 최아란
흥새미 흥지영 김민선 김지현 우연주 이자경
정태을 황미리

기독교학전공

구혜빈 권은지 노가은 류명혜 박이수 이고은
황유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곽한슬 권지애 김다영 김모란 김문선 김소라

김소정 김수정 김예지 김지선 김지혜 김현주
김혜경 김혜식 김효정 류호정 문민담 문숙희
박선나 박유빈 박지현 박혜미 배효명 백주영
석혜민 신준희 안소연 오세나 우지혜 윤예진
윤혜림 윤혜원 이동휘 이영진 이새록 이서경
이수희 이승민 이예슬 이유정 이자윤 이지윤
장은재 장정윤 전민지 정명찬 정태을 정혜진
정호주 조민지 진송이 최은정 최은진 최재희
한지원 하수인 황민지 Moonsri Kingkarn
PHYU PHYU LWIN SOE 권수영 김경희
김다영 김미현 김선기 김수현 김윤진 김진아
김한별 노나예 노한희 박정민 서영희 서은지
손정아 안 은 우희원 이시은 장세연 정지영
정성희 최민복 최민선 하소리 한문화 황수정
행정학전공

강수립 공아림 공진영 김보현 김 빙 김새벽
김유진 김은지 김재은 김지연 박영희 서다솔
손은수 안나리 안 은 양지현 우윤정 이민경
이수민 이슬기 이유빈 이주희 이자민 이형하
임혜미 진재원 한문화 권윤영 김지수 박민선
박아림 박정지 왕희영 이다희 이윤정 이지선
경제학전공

고민성 고임지 곽서현 구성하 권수영 권정윤
김남영 김누리 김도희 김리사 김민경 김선아
김윤정 김윤지 김이슬 김주연 김준하 김지윤
김지윤 김진슬 김진아 김하은 김혜인 김현주
김혜림 김혜미 김혜연 김학수 노연지 노현희
문보라 박규리 박성원 박소라 박이영 박은혜
박자경 박정지 박지연 박태이 박혜은 백자숙
서민아 성지희 소다미 손예진 손혜원 신다희
신수지 신승민 안지현 엄소라 예자에 오정현
오현교 원유은 유규현 유상민 유수인 유수진
윤에나 윤자승 윤재희 이다영 이다현 이다희
이민혜 이새록 이서연 이시은 이예지 이인혜
이정희 이지선 이희진 이嘲리 임정은 임종록
임지혜 장세미 정민수 정수민 정은영 정은하
정호조 조문주 조정은 조혜윤 진이주 최다연
최민선 최소담 최승화 최수영 최아름 함서진

현유진 흥은표 황인혜 강수림 강은빈 고민자
공아림 구혜빈 권선희 김가람 김다영 김모란
김문선 김민지 김보람 김보현 김 빈 김새벽
김선녕 김소라 김소연 김소현 김수경 김수민
김수정 김슬기 김영은 김유정 김은우 김은지
김은지 김정윤 김주희 김지안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 진 김채린 김현정 김혜경 김효경
김희원 나스리 노은형 노의슬 무진슬 문다슬
민유정 박가희 박경진 박민영 박 솔 박영희
박유빈 박유진 박은민 박은세 박은조 박이수
박정은 박종선 박주현 박지나 박지연 박지인
박진경 박혜미 박현정 배민화 배주영 서유신
서은교 서지현 서혜승 소진영 손정희 손주현
송경미 신재은 심예은 안나리 양여경 양안선
양지현 오선민 오예진 오은비 윤혜림 윤보라
윤혜원 이고운 이도영 이명진 이서희 이성은
이순현 이슬비 이승민 이여진 이연지 이용정
이유정 이윤정 이정은 이정효 이주희 이지민
이지현 이진아 이찬양 이차은 이행경 이현경
이형하 이혜선 임수빈 임종은 임준희 임혜미
전려야 전민지 전예원 전하연 정다영 정재희
제은솔 조영현 조윤아 조은혜 조정아 조행선
조희경 진재원 진현정 차현정 채지희 최유림
최자희 최정난 한수지 한수진 현은주 황민지
황신주 황지원 Peng Xiaoyi

문화정보학전공

김예슬 김민진 박경진 박경혜 송지아 오은아
유자윤 이규영 이수빈 이승현 이윤정 전예문
한주희 흥다예 김민주 박유영 배은유 백승민
안소연 이은별 정예림 진승이 최선영 하지원

사회학전공

강현자 권유경 김예린 김은하 김주혜 김지우
김희연 박민정 박슬기 박현정 염고운 유가희
이유진 이은별 임종은 정다솜 전나눔 전민지
조아현 조은혜 최경원 최선영 최재원 김슬기
김윤지 노윤진 박은슬 배현희 오지현 응가람
이서연 이세연 이소연

심리학전공

강선정 김나영 김다인 김민선 김사란 김수민
김수연 김은우 김지희 노현정 류지희 박선영
백지영 석미희 소아현 송규인 신재은 오선민
오지은 오지현 원혜림 유지민 유지혜 윤지원
이경원 이상아 이순현 이예은 이자경 이재윤
이정민 장유진 정다혜 최예림 최예슬 최예지
최유진 최은비 최혜연 추수빈 편서빈 황희진
KONO TAMIKO Peng Xiaoyi 강민지 강승민

구문정 구윤정 구혜란 권호수 김기나 김다님
김다운 김다인 김선희 김소은 김소희 김수연
김슬기 김유정 김유진 김이나 김인희 김주리
김지강 김지현 김채영 나은경 명진아 박나눔
박수아 박용원 박진서 박태이 백지은 서연주
서은정 신윤정 신해지 안수민 오은혜 유기희
유선영 이나영 이루리 이목혜 이샛별 이아람
이은샘 이종은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하정
이화진 이효경 임은지 전민지 전수진 전현아
조분경 조영은 조지현 주세진 최승화 최주희
최현주 하기영 허유정 허 진현유진 흥정연
소비자학전공

김수미 김수지 김슬기 김진희 김하온 김한슬
박용원 박지인 이예은 장수훈 최혜윤 한혜원
한희영 김지민 김혜진 박규리 박샛별 박수진
박옥동 박재경 윤보영 이승현 이자수 조아라
차용주 최다연 최혜정 한주희
언론정보학전공
권은을 김연정 김소연 김슬기 김주영 김자수
김진경 김한별 김호진 박선진 박은을 변주연
서혜승 손정아 신수빈 신희정 심지연 안지윤
양지선 오은비 윤인애 이도은 이세연 이소연
이은영 이지훈 장여진 조희경 천민영 최은혜
한수연 Liu Yu 강민경 강소연 김세영 문숙희
박선영 배민영 송주영 임지현 임희동 천세림
최은진

광고·홍보학전공

강민영 강혜리 권채란 김세희 김윤미 김효정
문서영 문원영 박수연 서은교 성지영 손모아
심주영 오예진 유가영 이루리 이목혜 이민재
이예랑 이예은 이운형 이은지 임혜주 지나현
차이연 하향희 CONGWEI SU IkomaYuri

권은을 김호진 김효정 박세영 오지영 유한서
이진슬 장여진 전채림 정현주 조현진 조희중
천민영

방송·영상학전공

김세영 변예슬 성민경 양안선 우지윤 유새별
전채림 정선주 정성은 최현선 황주리 김유진
김지연 김진경 변주연 손모아 신혜연 심주영
안정연 이유진 주지민 IkomaYuri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강은빈 김경모 김다영 김민지 김민지 김보람
김소연 김영진 김유진 김지영 김지윤 김 진
김채린 김현경 김혜성 김희원 박민영 박유진
박은세 박은조 박정미 박정은 배민화 손정희

신승아 신재은 안덕중 이라야 이선영 이어진
이영명 이용정 이은희 이정은 이지영 임보영
임수빈 장영은 전예원 정세은 정지윤 정하영
정현이 조행선 최경인 최은아 최현정 현수진
흥하영 황아영 김희연 박예은 신은진 연미라
임미진

통계학전공

강현진 김은지 김의정 김정윤 김지혜 김진영
박가희 박리라 박보미 박새름 박 솔 박예은
박은민 박종선 박찬예 손주현 손혜경 송경미
신세정 신은지 안여경 양혜인 이경진 이도영
이린다 이슬비 이진아 이현정 이해선 임현정
정다영 조혜진 최유림 최정난 한자윤 한혜진
문자수 이지영 최은자 함서진

물리학전공

김지혜 김미래 김봉주 김유정 김지혜 김희연
문한결 손주자 신연재 신은진 연미라 이하연
이하영 임미진 정은애 지정은

화학·나노과학전공

강세린 강슬기 강연주 권나현 권민지 김경은
김민혜 김선희 김예슬 김은주 김정윤 김지영
김현수 김현정 김혜안 문희진 박근아 박보연
박세라 박주영 박현정 서연경 서효진 송효원
심예슬 안학영 안효진 오지영 이상현 이선숙
이소희 이인선 이주리 이주현 이주현 이청아
이혜림 임조아 장하윤 정서희 정재원 정주희
조규완 조미빈 조설아 조수빈 조은희 주예영
주희선 최자선 최지혜 한서연 험보영 현주영
황산주 황혜선 김초롱 흥자혜

화학전공

이미희

생명과학전공

강지수 강지영 고슬기 구하림 권혜령 김경민
김다운 김세진 김수연 김연지 김유리 김유진
김은영 김지호 김지희 김진현 김초롱 김태경
김현승 노현서 박선영 박선희 박수경 박영희
박정민 박주연 방신영 서은지 서혜린 송현정
양은혜 오수현 유명은 윤은지 이다예 이민정
이세원 이소민 이 솔 이영해 이예진 이은영
이지영 장예원 정혜연 전민지 전소현 정영은
정윤조 조아라 조윤수 천하영 최수진 최아현
최안정 최윤실 최윤정 최인엽 흥수현 흥자혜
홍주연 홍보영 황영주 황유선 황지원 김선희
소혜성 오선민 유지윤 이선숙 최자선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김보현 김선영 김지수 김현애 김혜수 김혜수
남혜수 류은비 박미림 박보람 박수진 박수진
박윤주 박하림 박혜린 배유빈 서아림 서연희
성우경 성은지 손정주 신경은 신우정 신재은
신현정 앙다영 엄지혜 이선포 임어진 장예현
정다희 조민경 조우리 추윤혜 하태은 황유선
MUNKHBAYAR KHALIJUN

전자공학전공

강민주 강이령별 권정민 김다영 김민경 김민지
김민혜 김술영 김정은 김주연 김현자 박미정
박선영 박지연 박지영 신아리 신연경 윤율아
염자수 유남경 유선영 이민지 이소라 이지선
이자원 임유란 장유리 정수진 정지원 정혜선
정혜영 조민지 조예슬 조인영 차아림 천은지
최예인 최유미 최윤성 한주희 하애영 흥은재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임자온

건축학전공

강수지 권은지 김기예 김선아 김예슬 김예은
김지희 박소영 백조룡 신혜리 오혜린 유자희
이예주 이정민 전소현 전은경 정민경 하예린

건축공학전공

강희지 김재경 김채린 김현자 류진아 배수진
서희조 신은정 오정민 윤수인 윤현아 임이슬

전인학

환경공학전공

강유경 김다은 김민선 김선희 김은선 김지선
박재은 박하늘 박혜원 서새별 신우정 오규립
원유라 윤한라 윤혜진 이도경 이선우 이유리
임서연 임혜림 전소연 전소현 전연선 정다빈
정한나 정혜정 조예슬 한상희 흥민지

식품공학전공

강비아 김사빈 김은하 김희원 민경원 박설희
서주영 서지현 손주희 송채영 이민경 이소연
이수진 이신혜 이주영 이영민 장우정 장혜진
정유진 최민경 한지윤 흥아린 황미리 황정미

음악대학

건반악기전공

공원경 김다인 김세원 김수아 김영인 김은희
김주리 김지은 김지현 김태희 김해든 김혜림
김혜실 박나혜 박소망 박정례 승새벽 신예랑
양승미 양지원 염솔이 이기재 이나겸 이세리
이종은 이지은 임슬이 임예지 정하영 조민지

조한슬 현지혜 흥미소 흥수지

관현악전공

강다혜 꽈예지 권다혜 김도아 김동희 김미진
김민정 김서란 김양희 김영경 김영신 김인애
김자우 김지희 김효경 민다혜 박나윤 박새름
박지희 박태연 봉빛나리 설지영 양희원 염혜진
모은빈 오지혜 모초희 이예림 이지현 임다은
임소영 임예지 조최현 조혜진 채원정 최유나
최진희 흥인희 횡승유 SATOMI IWASAKI

성악전공

김근아 김민희 김소아 김소희 김정희 김지원
김진영 손예지 송나라 윤선영 이다솜 이선정
이정희 이해연 흥유나 황의진

작곡전공

강수경 김다솜 김성경 김연수 김자연 김현지
박별님 서현정 석혜원 신보희 오혜은 원유진
윤지원 이다예 이현아 임보미 전세은 전수진
정승연 조은혜 한다희 흥지현

한국음악전공

강정은 권민수 김가원 김건희 김고은 김보라
김수연 김원아 김태연 김희진 배현희 백수영
백신영 선유진 손수림 염원양 오희영 왕희영
유솜이 윤나라 윤신아 윤영근 이상경 이신애
이여진 이재경 이주연 임도화 장은진 정지은
최지은 최혜은 하소라 흥지은

한국음악과

이보람

무용과

강다영 강신은 김선희 김영민 김재민 김재은
김자은 김진희 김태희 남선희 맹자은 박새봄
박서령 박소민 박진아 박혜준 방민정 성은지
신다혜 안현정 우지영 윤보나 이가람 이수오
이은아 이은주 이정은 이지선 이진희 조우림
천소정 하은금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고은애 권형인 김민주 김수현 김은정 김현경
박은진 박진아 변은승 서리라 이송미 이정현
이효정 임슬지 장소영 한지희 현민정 황석원
최현민

한국화전공

임슬기

서양화전공

구혜린 권소진 권희선 김남 김도연 김선경
김윤경 김주희 김준희 문초룡 박아름빛 서민정

서채영 송수민 송해린 연예진 오소현 오주영

원경윤 윤인로 이아미 이의진 이주희 이진영
전은주 조수빈 조수연 표민선 험다미
Kustosz Dominika 김민지 김신의

조소전공

강리원 김다슬 김미현 김소연 김수민 김지윤
박다솜 박소연 방현지 서은정 손규리 손유나
신연희 양혜진 윤소인 이민진 이소형 이우현
임다현 하영서

섬유예술전공

공성경 권현아 김민지 김아름 김윤희 김지수
김혜진 뮤지연 송지연 안윤주 윤희영 전영화
전해운 채유정 최현민 하정아 흠명희 흥도경
황혜진 김수민 이주희

도자예술전공

강서영 권재은 권혜현 김신의 문다정 박단비
서영화 이소영 이지현 정수진 이은혜 장유진

공간디자인전공

권수진 김지윤 김혜진 남유선 서희윤 신선헤
심도형 유진주 이소희 이예지 이유진 이진영
최보연 Qi Shengwei
윤주경

시각디자인전공

구선아 권지현 김민영 김빛내리 김선재 김혜원
남선희 문재희 박선정 박유진 박지현 백혜정
오정민 은 슬 이은샘 정현주 조정연 황석원
산업디자인전공

김예슬 김정현 김지혜 박서린 박수진 신소에
이미희 이한뉘 이혜인 장은비 조윤희 하은진
홍여진 흥안영

패션디자인전공

반 달 신소영 유미림 이재은 정수민 정은정
최다은 Verkholyak Yana 전영화 홍도경

영상디자인전공

권지현 김지나 김채승 노선영 양지현 전세연
신소에 오소현

의류학과

고아라 김경민 김정현 김지민 김혜연 문경희
문혜리 서현주 성다영 성예지 손예슬 신지혜
양기현 유한서 윤희지 이소현 이수진 이유경
이혜원 전보영 전유상 전인아 정선아 조소현
조영은 조현진 지 수 진소희 최현경 한 별
현지윤 지소연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민혜 김수용 김수희 김승하 김은혜 김현진
남윤경 민경신 박미선 박소영 박수아 박혜정
배현주 서유진 송기쁨 솔슬기 심보선 이서은
이수지 이지선 이현민 임슬기나래 최희남
추자윤 한은솔 한혜진 허정은 흥다은

유아교육과

김도연 김민진 김예슬 김태은 박다혜 박서연
박소희 박혜원 손지현 송다슬 양지은 유희정
이세영 이승현 이정은 이정희 이주은 이혜인
조은비 주희진 최보경 최정윤 최혜은

초등교육과

강예은 곽세윤 김가연 김나경 김민정 김자수
김희라 노세영 민연정 박소현 박시원 박유정
박주현 손채림 송지원 심은애 심혜민 안수민
오승희 이예원 이하나 이현지 임슬지 장해림
정유경 정한슬 조수연 조현주 조효빈 최문영
최자원 최혜영 추효정 한누리 한도연 한소연
한재희 흥수연 김자희 오현정 이정희 이채란
최기람 최연교

교육공학과

김민주 김소희 김은자 김효진 노진경 서지은
송유리 신미진 안소연 유지영 이수민 이유정
임은지 정성은 정연지 주자혜 최연교 황혜원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전공)

김예진 박경은 이다은 이수빈 최영신

(초등특수교육전공)

구 슬 김나연 김유정 나지희 류승연 유수영
이나현 이은별 전민지 전영선 정희진 조예진
조현정 진은총 최기람

(중등특수교육전공)

박성은 박지현 엄혜지 이다은 정주성 흥정연

황보현

영어교육과

고민지 고우진 고효주 권규리 김예지 김원주
김유진 김자은 김진슬 나다빈 노푸름 류정민
박수진 박찬진 변은수 신이지 신혜정 안시현
안예원 안자수 오상아 오서정 윤연수 윤인아
이사라 이소원 이 슬 이예림 이정민 이지민
정슬기 정유경 조영지 조주연 최사론 최지은
하서영 하유리 현은우 강기목 길은지 김민혜
김용희 김은혜 김지아 노진경 박지현 배현주
신미진 윤하영 이서은 이수지 이현민 최민경
추자윤 황보현

사회생활학과

(역사교육전공)

강기목 길은지 김미혜 김서영 나훈영 노혜진
박정민 서지현 안수빈 오민아 오현정 이수진
이 슬 이윤주 이윤주 이은슬 이지원 조유라
박성은 허유정

(지리교육전공)

강미나 강민지 권지혜 권혜진 김민정 김보경
김지아 나선이 박다슬 박현서 안세진 이나라
이수진 이은경 이주희 이 휘 임혜원 장해미
최의연

(일반사회교육전공)

강미연 경지원 김수경 김용희 김은암 김주선
나누리 박수빈 박수인 박화연 서민경 양서윤
양현정 유타을 윤하영 이수진 이은영 이진경
이태영 이희원 차린이 최민경 최지은 탁윤수
한승희 한은정 허유정

사회과교육과

(역사교육전공)

박세진

국어교육과

김나영 김민주 김보경 김은정 김지은 김한아
김효진 노 아 문희연 박샛별 박소영 박주혜
박지원 박지현 박효비 부아름 삼예온 오명우
오히람 이소라 이재연 이채란 임수진 전소영
정서진 주혜영 하명진 한예슬 허기영 황혜린
김민정 김소용 나선이 남윤경 심보선 한은솔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구유나 김은진 김재희 김지연 김조롱 김효정
마혜정 박수정 박정은 박지선 박현지 선초롱
어숙연 이다희 이사연 이지선 이해은 장혜경
정지현 정한슬 조혜진 최슬지 황진영

(화학교육전공)

김민영 김주희 김대경 남유정 민혜리 박성조
박윤정 신수경 안소연 안수진 안효빈 유지영
이민경 이성경 이지민 이지연 이지영 조은지
조제희 지은서 최슬아 최정아 최효은

(생물교육전공)

김민서 김하현 박민영 박인혜 박혜림 신지윤
안지은 유예슬 윤은정 이도은 이유경 이혜수
임지아 정수현 정인자 최루비 최소운 황미리
민경신

(지구과학교육전공)

공예인 김민선 김서희 김승이 노수빈 문미술
문주영 문혜리 백제희 설유진 안완주 안혜경

양은혜 우단비 이민아 임다희 임예슬 장성연
정수정 정재인 최미선 최영진 최혜빈 한은혜
함지영

수학교육과

강혜림 고은경 고태이 권나영 권해연 김기영
김고운 김세희 김안나 류지수 박주현 박지혜
박현지 설민영 이를희 이선주 이은혜 전안나
황희은 김수희 김지연 김종룡 어숙연 이시연
이태영 최희남 한혜진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강재은 고영란 고현정 곽난령 구문정 권원경
김기나 김나영 김남희 김미경 김민지 김보경
김선영 김소현 김슬기 김영은 김윤지 김인화
김주희 김지민 김지수 김자현 김지현 김차영
김현지 김효경 김희숙 나소리 나은경 노은형
노의슬 노진영 류지희 맹수은 목진슬 박나눔
박나리 박소영 박자수 박진경 박한슬 박혜린
박혜준 배도은 배선애 배수인 백지은 변예지
소혜성 신혜지 심유진 오선민 옥이원 유재림
윤소현 윤혜정 이다은 이세미 이소연 이승연
이연지 이우진 이윤지 이정현 이정희
이지민 이지원 이지현 이채은 이하정 이현경
이현승 이혜지 임주율 장유진 전현아 전희연
정재희 정혜선 정현주 제은솔 조아라 조 은
조정아 차용주 차현정 채재희 최서희 최유리
최주영 최지영 최혜원 하민지 헌승이 한수지
한정아 현은주 황수민 황지원

DU THI MAI LINH Li Ridan YU CHING YU
강나연 강미연 강세린 강소현 강솜이 강채리
강현진 강혜경 구슬기 구인이 권혜진 김나영
김누리 김미현 김민경 김민주 김민희 김보경
김보연 김사란 김사연 김수강 김영진 김예지
김유경 김유진 김윤주 김의정 김재은 김지연
김지윤 김지현 김하은 김현희 김혜연 김하주
김혜진 김효천 노현진 노주현 류명혜 류지희
문서영 문혜리 민빛나 박기나 박리라 박새롬
박소라 박소현 박수연 박슬기 박재연 박정례
박정미 박정은 박주은 박자연 박지영 서지민
서지은 서화조 성예지 성지영 손예진 손정연
송유리 송유진 송재연 송현지 송혜주 신다희
신연수 신지혜 안세진 안희진 양서연 앙혜인
염은샘 오지연 오지윤 은누리 우윤정 유상민
유새별 이다영 이미희 이수형 이우현 이운형
이유나 이윤주 이은정 이은지 이정민 이지혜

이청아 이하림 임정은 임현정 장소영 장유진
전보영 전인혜 전재은 정다혜 정성은 정아름
정은영 정현정 정혜선 정효정 조예슬 조정연
조혜진 지 수 차아연 채민정 최승주 최유진
최은민 최지영 추수빈 하수빈 하지혜 한자윤
한지원 한혜원 황유정 황혜원 황혜지

국제사무학과

강주경 강형원 권세영 김기람 김민경
김선희 김유황 남향인 박도림 박지연 선소미
심유라 양진영 원유정 이수민 이윤정 이지연
전수진 최윤정 최지영 허 진 흥다현 황혜지
Chadraabal Ganjin 김은영 김진슬 노연지
박수빈 박수인 안수빈 이 슬 이예지 이진경
정성은 정유진 조효준 최혜랑 흥태영

SRIBUNPOTPATTANA LAPASSANAN

국제사무학전공

손기쁨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전공

강슬기 강지은 계향미 고미현 구민진 권효진
김기현 김구나 김민주 김민지 김보영 김수현
김예진 김유진 김정호 김지혜 김하림 김현수
김혜원 김희진 남은재 문기현 박서희 박신영
박지영 박지현 방정민 배 윤 백다인 백체영
서민경 서민유 서아영 손햇님 송준영 신서인
신지원 심지선 양애슬 양채미 염영은 오현정
우한빛 유리호 유현진 윤소람 윤혜민 이경민
이규리 이정진 이민영 이민재 이보라 이소연
이승연 이 슬 이시연 이영련 이윤재 이재은
이주희 이지연 이지은 이지은 이채은 이현영
이해민 장지은 정진영 전소현 전현희 전지은
정윤경 조은희 조한솔 조현정 조호정 주승빈
최수민 최수정 최주연 최지영 최현정 한승연
한혜윤 흥지수 흥선주 Choi jenny ball

체육과학전공

강소희 김나래 김소은 김수진 김유미 김현정
김혜주 김희정 민다홍 민세희 서연주 손지나
신지은 심은비 오은혜 오찬옥 이나영 이민주
이수연 이연지 이정은 이해란 이화진 이효경
임지수 전현정 정아름 정현영 정현정 지수연
최유미 최현주 하희라 함예슬

체육과학과

김민정 김선희 심현영 이지현 임지현 정유진
천세림 하지희

식품영양학과

권수아 김봉선 김서진 김수연 김혜진 박재연
백승이 서유나 손진영 신윤지 심희영 오나래
오수연 윤보라 이연진 이정민 이자수 이자수
이지원 전수정 전혜린 정주연 조민영 조효준
최연재 최정인 최지인 하소희 흥서정
보건관리과

약학대학

약학과

강혜수 고윤경 각영화 구민지 권지선 권지영
권혜주 김경진 김나경 김남윤 김문수 김미지
김수진 김언정 김유정 김윤경 김은진 김은혜
김지애 김지윤 김채진 김혜린 김혜은 김효정
남소은 남희나 노민지 도혜인 문연숙 문정화
문진영 민지현 박경률 박미진 박수희 박신영
박아현 박윤희 박지혜 박지혜 백경진 백민영
백수정 백혜진 변지희 서보금 서아영 서예린
성명진 성진원 손민수 손은정 신태경 심효연
안지애 안지현 양슬지 여상아 원선희 왕이영
우수빈 우효원 위상미 유은지 윤상미 윤신영
이관영 이내경 이다경 이 란 이민경 이서영
이선영 이성민 이소라 이 슬 이은별 이은학
이은희 이진하 이해인 이현주 이해령 이해인
이혜정 이해진 이해진 이해진 이호연 임주현
장보라 장선영 장수아 정윤정 정정원 전다솜
전신애 정경은 정승혜 정유진 정일영 정지아
정지영 정자영 저현진 조민경 조윤희 진민경
최경원 최고은 최보경 최 은 최주연 최지은
하수연 하지혜 한아람 하수향 흥선혜 황수연
황조윤 황지현 황혜수

산업제약학과

박신영

스크랜턴대학

자기설계

(스크랜턴-통합적문화연구)전공

권은지 김은아 김지혜 김혜연 백주영 오세나
장다솜 장은재 최은정
자기설계(스크랜턴-디지털인문학)전공
김수진 이민재 이예랑 황주리

자기설계(스크랜턴-사회과학이니셔티브)전공

김민정 김선아 김성은 김소연 김이슬 김하영
김현주 김효정 박새롬 성지희 안소연 오상희
오정현 이새롬 이수지 이영해 이윤주 조경채
조 은 진이주 한혜진 황수연

자기설계(스크랜턴-과학과생명)전공

유지민

자기설계(스크랜턴-인체와건강)전공

권민지 김지호 김하림 이영해 이예은 정서일
최윤정 하여규 현진의 황자원

자기설계(스크랜턴-사회와정의)전공

김에리나 김후령 배도은 신은정 신채은 심자수
전나눔 조정은 흥에리나

국제학전공

강나연 강채리 강혜경 구인아 권서인 권호수
김나현 김디영 김미림 김보영 김연진 김유진
김진아 김하영 노나예 문희경 박민아 박정윤
박지혜 손지원 송다영 송아름 송혜주 우연주
윤영미 이서영 이수영 이승연 이아람 이연정
이유나 이은지 이정은 이지현 이현경 장슬빛
주세진 자윤선 추은지 흥주영
Verhulst Chelsea Juae 주혜영 한수연

예술대학

관현악전공

박예진

작곡·이론전공

이나이

한국음악전공

이예진

동양학전공

강주희 김효영 유재연

서양화전공

윤주경 정수진

조소전공

정수진

섬유예술전공

방소연

도자예술전공

방예진

공간디자인전공

김은경 이미애

시각디자인전공

이희선

패션디자인전공

이지은 정아라

<p>의류학과 임희용 최혜정 무용과 김수지 이 화 정진영</p> <p>법과대학 법학과 강다솜 강승민 고정아 곽주연 권민경 김기희 김단비 김도윤 김민형 김선경 김선기 김성지 김슬하 김유나 김지안 김지원 김지윤 김현정 노아라 문 린 박소연 박승이 박진경 박진솔 박현서 서다솜 서유진 안영윤 안은형 안천지 유혜지 윤은주 윤재연 이민희 이유진 이윤지 이은진 이지선 이지수 이지은 이효지 장성윤 장은영 전보영 정다원 조현주 진서정 차민정 최하령 하다희 한규정 흥수임 흥현정</p> <p>체육과학대학 무용과 이보람</p> <p>연계전공 동아시아학전공 김단비 노혜진 박민서 신수빈 심소리 정지영 최재원 황경미 황선경</p> <p>미국학전공 김민정 선소미</p> <p>유럽학전공 강연주 고현정 김은우 김현주 박은비 임영주 황소희 황연수</p> <p>미술사학전공 강리원 강민정 강현아 권형인 김 남 김다슬 김미림 김미현 김민주 김민형 김아름 김예슬 김윤경 김정아 김정현 김주희 김지원 김현지 김혜진 김호영 문초롱 박다솜 박소연 박아름 빛 박은진 박현서 배주영 서민정 서채영 손규리 송지연 안소현 염고운 오수진 오유미 유수인 윤인로 이규영 이다예 이소연 이아미 이영민 이윤지 이은슬 이정윤 이정현 이진영 이효정 장소영 전은주 정소을 정아라 정해선 정현정 조수연 조은희 조혜정 진서정 최다은 최유리 최의연 최자은 최현경 최효진 표민선 하민지 한송이 허유정 흥명희 흥석영</p> <p>여성학전공 강현지 고병진 권원경 권유경 김나영 박혜원 우지혜 정성은 조은혜 조정환 최은비</p>	<p>멀티미디어학전공 박세라 박정윤 임혜원 최주영 최현선 전문영어전공 권서인 김주혜 박주혜 송채영 양소영 예지애 윤영미 이수아 조아혜</p> <p>NGO전공 김예린 손지원</p> <p>북한학전공 공진영 김다영 김보경 김주영 박선영 석혜민 손지나 심유리 양지현 우희원 윤자승 이지윤 이진경 정명찬 정선주 조민지 최서희</p> <p>한국학전공 김나영 박소영</p> <p>인지과학전공 오수현 최예슬</p> <p>도덕·윤리교육전공 김현진 송슬기</p> <p>정보보호학전공 신연재</p> <p>과학기술경영전공 김민지 성은지 이경진 최유미</p> <p>재무경제전공 김남영 김도희 김지수 김현지 김혜림 이인혜 장제미 조문주</p> <p>공통사회전공 강미나 서지현 이나라 이수진 이 슬 이윤주 이지원 이희원 조유리 허유정</p> <p>공통과학전공 공혜인 구유나 김민서 김민선 김민영 김서희 김승이 김은진 김자희 김주희 김지연 김조룡 김태경 김하현 김효정 남유정 노수빈 마혜정 문미술 문주영 문혜리 민혜리 박민영 박성조 박수정 박윤정 박인혜 박정은 박지선 박현지 박혜림 백제희 선조룡 설유진 신수경 신지윤 안소연 안수진 안원주 안지은 안혜경 안효빈 양은혜 어숙연 우단비 유예슬 유지영 윤은정 이다희 이도은 이민경 이민아 이성경 이시연 이유경 이지민 이지선 이자연 이지영 이혜수 이혜은 임다희 임예슬 임지아 장성연 장혜경 정수정 정수현 정은지 정재인 정지현 정현슬 조은지 조제희 조혜진 지은서 최루비 최미선 최수윤 최슬아 최슬지 최영진 최정아 최혜빈 최효은 한은혜 험지영 황미리 황진영</p> <p>이동학전공 강소희 김미연 김민진 김지윤 김지희 노 아 신지은 이민주 이지영 조수희</p>	<p>바이오인포메틱스전공 김유리</p> <p>일본언어문화전공 강민경 강필현 강혜리 고민주 김소희 김수민 김유향 김지영 김지우 박선영 박이슬 이연진 이지윤 임주율 전민경 전민지 전희연 조희경 주자혜</p> <p>사회복지학전공 김면경 김은하 박선영 서효진 유지혜 이지인 임종록 최기립</p> <p>계산과학전공 김지영 김지윤 정지윤</p> <p>융합디자인전공 권수아 김수지 김인화 박서린 이해인 장은비 하은진 한희영</p> <p>석사학위 수여자 명단</p> <p>대학원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김정인 박소영 이효린 DEEPSHIKA LI YANG (중어중문학과) 구현경 (영어영문학과) 백은영 유태영 정해경 최승하 황효진 (불어불문학과) 송지은 (기독교학과) 김현정 심은실 유상희 (철학과) 고효주 김다희 이지현 (사학과) 백다해 조누리 지한솔 (미술사학과) 곽하지 김예나래 노재은 방초아 신현진 오혜진 이인영 이채린 정원주 최소영 (소비자학과) 김정경 최자혜 HE YIYI (여성학과) 백미록 윤영수 조소연 (교육학과) 곽미성 권미소 김진아 김현주 문민지 박수련 박주현 우라미 윤효정 이현주 전은정 편지애 홍은지니 QIANQIAN QU LIN</p>
--	---	--

(유아교육학과)

권혜진 김아경 김지은 김진실 박재진 이누리
이예린 이지영 장현빛 정우정 최자은 활윤하
(초등교육학과)

이승은 지다슬 한혜주

(교육공학과)

강우리 김유나 박하나 유예솔 이수영 정현민
하건희

(특수교육학과)

강유진 김아름 우규연 이설희 이수연

(영어교육학과)

김민주 김영화 김진경 손선영

(사회과교육학과)

이화용 전다해

(국제사무학과)

김민정 김소영 민희경 박세미 송민영 유은혜
이수연 이유경 임금실 황현정 황현희

TIAN YUAN

(수학교육학과)

고자은

(동아시아학연구)

이한나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과)

김미선 김애림 박혜민 조가원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김진아 마민지 이강민 정정해
LIU JIA XU XIN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김지희 마지막 안소연 WEN RUN

문화정보학석사

(문화정보학과)

서윤진 윤아란 이지영

사회학석사

(사회학과)

장은지 장희진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김지민 박신영 신선아 유혜선 이루리 이재희
이자은 이현정 장새별

심리학석사

(심리학과)

경에나 곽민정 김나정 김민정 김소연 김예진
김지아 남향민 박수영 박지원 박찬정 신다원
심다혜 우사라 이사랑 이슬아 이한슬 이 화
임샛별 임유진 정보경 차재은 최윤정 하은혜
홍나래 ZHAN QING QING

언론학석사

(언론홍보영상학과)

유승희 흥서호

아동학석사

(아동학과)

김누리 김승진 김혜진 서민지 성지원 송수진
이은정 조영주 최 선 CHOI ESTHER
JIN XIAN XIANG

북한학석사

(북한학)

김소리 심사라 임한아

교육학석사

(국어교육학과)

강영주 김다예 최수진 편지윤 황성해

(영재교육)

김효연 장문경 조은영

언어병리학석사

(언어병리학과)

강지윤 김산영 모경옥 문은정 엄보라 윤미류
윤사라 이재령 이지선 최보람

법학석사

(법학과)

김서영 김주현 박경진 성윤희 신지원 이민정
이유정 QUAN JI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강여원 김보경 박은아 박주희 성지윤 신기영

양희윤 윤지연 이다솜 이수경 이윤정 이정희

이현주 이해정 임보영 조아요 지세윤 채정기
HUANG MENGXI

음악치료학석사

(음악치료학과)

박한나 오수진 조아라 흥해진

이학석사

(수학과)

김다정 김보름 김승희 박신혜 박주연 이상희
임아람 정경미 하정민

(통계학과)

곽원선 구혜인 김광희 김수연 김여경 박주연
배나리 백은아 신꽃샘 연보라 이보경 이연호
이은솔 이현지 정현정 정상희 정 선한은경
홍세지

(물리학과)

김예지 김지은 최새름

(화학나노과학과)

강현아 고문지 김경진 김다빈 김이현 김지영
류승연 문수연 박선희 박진혜 양예진 오은영
이가예 이나금 이다은 이희인 장윤희 장혜수
전현지 조우경 최세현 최현아 CHI MEI YING
Dao Thi Thuy Nguyen PIAO RUI QI

(생명과학과)

김지혜 안은정 이한나 임찬미 허 란

(과학교육학과)

김보경

(식품영양학과)

고명신 김경미 김석영 신문경 심지원 안지윤
오상아 오수정 유영란 이규희 이유진 임진영
허성원

(의과학과)

김주혜 차보미 최도영

(에코크리에이티브)

이예지

약학석사

(약학과)

김다룡 김봄이 김세희 박지연 박찬미 오세라
이다은 이선영 이현정 전슬기 진소영 최자연
KATILA PRAMILA TAMIMA UMME

(제약산업학과)

나지혜 한주연

과학교육학석사 (과학교육학과) 윤소영	음악석사 (음악학부) 강예원 김기선 김경민 김다영 김신혜 김은유 김은정 김주혜 김현아 김효원 김희영 박고은 박선주 박세진 박아영 박정민 박진실 박태연 백수연 서현주 석정희 성하주 송미경 안주희 안지은 안치연 양수진 우푸른 원정인 윤소연 이경은 이미나 이민주 이보미 이현정 장 미 장수정 장영선 장지원 전다솜 전지혜 전현진 채수경 최명진 최은진 최한결 한채민 흥복희	생명윤리학석사 (생명윤리정책) 윤석란
보건학석사 (보건관리학과) 김수지 효윤정		국제대학원 국제학석사 (국제통상) 최은정 KLIMENKO, Evgenia (국제경영) 박세현 전은숙 (개발협력) 김윤정 김자은 김찬우 박다하 박한나 신영지 신은경 윤지현 이규림 이나라 이연지 임세은 최지령 최혜정 Lee, Hana TAYLOR, Kirsty Ross (국제관계) 김민경 김정희 진현선 CROSSLEY, Brittney Ilene
의학석사 (의학과) 류민선 이고은 장지영 하보람	조형예술석사 (조형예술학부) 공화정 김현수 남은우 민정인 서미래 설진화 신유정 안지예 이승희 이준영 이지은 임지혜 정승호 조윤원 조혜진 최윤지 한윤경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박서하 임성주 (전자공학과) 강태경 나명진 심미란 양서희 유희선 윤소희 이고은 채승희 최윤희 (건축학과) WANG RUIQI (건축공학과) 박민주 전인아 (환경공학과) 김선혜 신수진 임현정 (대기과학공학과) 강희정 김완희 김하림 박소정 박정민 이상미 임수정 WAN FARIZA BINTI MUSTAFAH (식품공학과) 권보경 권해림 김새울 이나혜 이원희 이주미 ZHENG LIWEI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부) 김가령 김보경 김영실 백현주 오은경 윤보람 이미연 이승희 이윤지 장지선 최민아 (에코크리에이티브) 민윤아	한국학석사 (한국문화) ANUFRIEVA, Olga ETHEVENIN, Celine, Marie, Pascale HSU, Tzu-ting YANG, XIAO (한국어교육) 주현하 최형연 최효선 황진주 ANISTRATOVA, EKATERINA ADACHI, Noriko FUKUI, Sakiko JIANG, Chuan LUKYUNTSZ, Lavina Pang, Yingjie SONG, Yini VERHUNY VIANDA KHARDINI
디지털미디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부) 고지애 권민경 김효진 문아름 서수인 유훌라 이지영 임지현 최선영	무용학석사 (무용학과) 김해리 박진수 이민애	동역변역대학원 동역학석사 (한영통역) 강수현 구수현 박사라 이해니 정찬미
음악학석사 (음악학부) 서승임 이유주	체육학석사 (체육과학과) 권지혜 정현지 조지희 조혜영 최윤진 황선영	체육학석사 (한불통역) 정재영 최정은 (한중통역) 공 수 김애련 김현진 박혜인 심현정 윤지연 전세례 최효단 (한일통역) 김민조 김성미 김수진 박인선 이경혜

번역학석사

(한영번역)

김설경 김수린 김진선 김진희 류주연 박영신
박인경 박지은 성예지 송민교 송재영 신소영
신지영 신진영 심은정 윤지혜 이보미 이원미
임유나 장기혜 장여정 정귀희 조우리 채유경
최윤영
(한불번역)
박다슬 박소희 조은별 황원
(한중번역)
김영선 김은실 신혜연 왕영재 윤수정
정윤희 LIN
(한일번역)
김한나 오하정 허지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
김성남 김인영 김혜선 김희준 문진희 손이선
신민정 양은별 이선경 이지연 장유다 장지윤
정윤희 현리사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경영학)
길지선 김경원 김예지 김현정 문혜미 민서령
박애순 박윤하 박하성 심연수 위수연 이수연
이은샘 이제나 이지연 이태욱 이현주 임자원
한민영 NI LINGJUN
(재무)
김하일 박진경
(회계)
유경아
(마케팅)
권유정 김지영 이수림 정강욱 황유미
(인사조직전략)
권연아 김수진 김행선 서명신 안미선 양미정
원미연 정윤정 최진례
(금융MBA)
강다능 구유나 김로사 김유나 김은지 김진영
박정희 윤태인 이은영 채승하
(회계전문MBA)
서지연 이은진 임수미 장유라 주연나
(의료경영MBA)
박미지 심희주 이봉진 이수민 이하정 장정이
한혜숙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

(의학과)

강미영 강새롬 강우선 권유정 권이영 권하님
김남경 김다훈 김미지 김사라 김상은 김선미
김소연 김수진 김영지 김유진 김윤아 김정아
김지연 김지영 김현정 김현지 김희연 남현주
노정하 박미연 박선영 박세원 박수진 변주란
부지원 서의정 오은상 유수민 유승희 유혜경
윤성은 윤소연 윤지현 윤혜인 음소연 이강윤
이명은 이미숙 이수정 이유민 이윤영 이정윤
이정혜 이준희 이찬영 이한나 임희정 전민선
전민영 정사임 정연희 조아라 조은혜 조현지
천미선 최나리 최민정 최보윤 최세은 최유나
최지윤 험신영 흥서연 흥재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법학과)

공윤옥 권지예 권지은 김나언 김나윤 김다혜
김다희 김명선 김묘진 김민재 김민지 김민지
김 선 김선희 김수산나 김영림 김예리 김은미
김정하 김지언 김지영 김현정 김희영 남은우
남지현 노자연 노현주 민혜영 박세희 박소정
박정하 박혜정 박승연 서은여 서현빈 석소린
신단비 신선허 신은영 신혜원 심현진 안민수
안민지 안수경 안은혜 양효경 여진아 오진해
원민영 윤성은 윤수진 이경화 이고은 이민영
이보미 이승은 이승희 이연승 이유미 이유빈
이유진 이지예 이지혜 이지희 이해림 이효선
임미진 장혜진 장희정 전경령 정승미 정아영
정유진 정지선 정지아 정혜원 정호선 조기연
조미선 조민정 조현희 주효정 지하림 채수지
최승은 최연주 최영미 최 윤 최지숙 최자은
최지혜 최혜수 한아경 한주윤 한혜준 함영선
황진주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국어교육)

김세희 문하영 윤슬비 윤이랑 이지영 전진하
최종원 황진화
(수학교육)
강미나 김다혜 김초록 김혜영 문도희 박호연
유별이 이지연 이해숙 이희정 장혜승 정수정
조은영

이달선 정희연

(교육공학)

강민진 김재현 안성란 이수경
(한국어교육)
공유정 곽수옥 김영애 문은현 박다은 안바라
이유선 이윤희 이해정 함은주
(음악치료교육)
강선영 강윤정 김미영 김잔디 김혜경 서은정
송혜지 엄미경 오지은 임미소 임은영 자경미
한승이

디자인대학원

디자인석사

(의상디자인)

김채현 김현영 박혜진 엄하영 이유주 임수민
장경은
(섬유디자인)
김윤경 박명화 원나리 윤선영
(도자디자인)
김리영 유정원 이영이 흥지연
(광고·브랜드디자인)
김경하 김선영 박민정 백하리 서혜연 이미지
이미현 이지현 임마누엘 임효정 전민영 정미경
조재은
(실내디자인)
맹자은 박신영 이주영
(User Experience디자인)
김가영 김준미 노은영 서보미 서지혜
(디자인매니지먼트)
김정아 김주원 박선희 박지영 박진경 신영주
심미혜 이선혜 임영미 전미화 흥현주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신학)

김명옥 김시란 김은례 박국미 박소라 서정숙
이윤정 장정이 Neiwei Kaplo Shonale Bairdyia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석사

(공공정책학)

김지홍 김효진 남유리

언론학석사
(언론흥보학)
이미림 손소영

(역사교육) 이연숙 (일반사회교육) 곽유화 김민정 김수지 (물리교육) 김영실 김해지 배수현 이 슬 (화학교육) 김미정 (생물교육) 김세영 김수진 오하나 차지혜 (음악교육) 강인화 권하영 김상미 김수연 김수현 박보람 박정아 박혜례 배우미 송윤주 송지예 신진관 신현희 이경민 이다경 이미리 이윤경 이인영 이혜미 장나은 장지영 전보람 정상아 정설우 정승원 정연지 조서영 최사름 한경보 (미술교육) 구민수 구슬기 김기영 김다미 김도영 김민영 김소현 김정아 김정아 김지수 서윤정 양근령 임수연 정명진 정혜수 조은혜 (체육교육) 곽예진 김다래 김소진 김지현 박민지 송효정 신윤경 윤선경 조윤지 조정현 (가정과교육) 이정윤 (도덕·윤리교육) 송하영 엄서현 정경희 (영어교육) 김미혜 김성은 김지연 마나영 박나현 신세정 안성원 이향진 임수진 하예은 (중국어교육) 김미혜 루 판 안혜린 이지영 정희정 조미란 (유아교육) 김민주 김진아 이예슬 정혜현 최서은 최수정 허은경 (초등교육) 표자은 (특수교육) 김자수 박사온 윤지영 이지은 주혜미 차영남 (교육행정) 남부영 이발순 (교육과정) 양설희 전혜리 (상담심리) 고영란 곽민경 김민선 박예라 송수정 윤상미	기록관리학석사 (기록관리학) 강해지 곽지영 김희정 송소영 오정희 이귀영 정민희 공연예술대학원 음악학석사 (음악공학) 강다해 권용선 박혜민 안성옥 안예지 장윤정 정혜진 (피아노교수학) 고지은 김혜숙 노은진 봉소라 오찬희 이소미 이은별 황명은 (음악예술경영) 공재민 최문경 무용예술석사 (무용공연지도) 오인향 정겨울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약학석사 (임상약학) 김현지 조혜민 정다연 영양학석사 (임상영양학) 김주연 손지현 양지혜 예아영 최지혜 간호학석사 (임상간호학) 김수정 남정희 박지혜 신현경 채경숙 임상치의학대학원 치의학석사 (임상교정치의학) 박귀엽 성민지 천지혜 배은하 구강보건학석사 (치위생학) 김아현 신보람 구한나 정수라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TESOL석사 (TESOL) 고은미 권혜진 김가을 김경중 김양완 김은하	도현진 박이슬 박지혜 박희령 손주원 우희영 원서영 이기욱 이수진 이승희 이해란 이해륜 장명선 전수경 최슬지 흥해진 국제중국어교육학석사 (TeCSOL) 김초이 도선희 서영정 왕 빙 한국어교육학석사 (TKSOL) 김선영 송유리 이해림 최지예 함윤정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대학원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손여임 신윤경 이은선 임유경 정보람 허 윤 Tsend Bulgan (종어증문학과) 문영희 (영어영문학과) 전양선 정선희 (불어불문학과) TCHOPOU TATSABONG SANDRINE (소비자학과) 최은영 (교육학과) 김남이 김미령 김성은 김수진 임효선 최윤정 (유아교육학과) 김연경 김현주 박신영 이승미 최혜윤 (초등교육학과) 김예진 송미사 장유정 최나영 (수학교육학과) 배수경 (디지털미디어학부) 권보연 김정선 서성은 윤현정 (의류직물학과) 홍지연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정하나 흥채은 흥희정 사회학박사 (사회학과) 조용남
---	--	---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학과) 강방글 김영애 문현주 성기원 이재희 진은영	권예슬 (의과학과) 전여진 (뇌·인지과학과) 한지영 약학박사 (생명·약학부) 김정미 문정연 이혜숙 최아영 (약학과) 강가영 신혜경	조형예술학박사 (조형예술학부) 김민아
심리학박사 (심리학과) 박철옥 박혜근 손보영 손정아 윤지원 윤진영 임지숙 최애춘	김정미 문정연 이혜숙 최아영 (약학과) 강가영 신혜경	조형예술박사 (조형예술학부) 이인숙 정승희 정은영
언론학박사 (언론·홍보영상학과) 김수진	과학교육학박사 (과학교육학과) 문지영 윤현정 윤혜인	디자인학박사 (디자인학부) 장하리 최은신
북한학박사 (북한학과) 이래정	간호학박사 (간호과학과) 김경아 김지현 김현도 영숙 마예원 박진아 신선화 이유미 조해련 황선아	의류학박사 (의류학과) 황송이
교육공학박사 (교육공학과) 김민정 김보경 박주연	의학박사 (의학과) 강나희 김간하 김수아 김지영 김한울 박미래 박소민 박은정 설경심 우재희 윤지영 이시원 정예선	체육학박사 (체육과학과) 강혜원 김미례 서호정
특수교육학박사 (특수교육학과) 김은숙 손유니	법학박사 (법학과) 안소영 윤현진 이명희	국제대학원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이현주 허봉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김미라 (환경공학과) 여민주 (식품공학과) 김민아	한국학박사 (한국어교육) SIRIRAT, SIRINAT
이학박사 (물리학과) 권민지 이년중 이누리 (화학·나노과학과) 김수연 김하영 반연희 장윤희 (생명과학과) 고려진 김은미 윤온경 조수인 Lin Jingjing (과학교육학과) 추미경 (식품영양학과) 김유진 정희정 (에코과학부)	미디어디자인학박사 (디자일미디어학부) 민혜기	음악박사 (음악학부) 기숙희 김선화 김희정 박혜현 이수은 CUI MEIXIAN



축하합니다

졸업연도순개재



김영숙(약학 67)동창 제17회 유재라 봉사상 수상

가정문화원 원장인 김영숙 동창이 건강한 가정 육성과 회복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서울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서 30년간 재소자들에게 한글 영어 검정고시 준비 등을 지도한 공로로 제 17회 유재라 봉사상을 수상했다.



조연순(교육공학 71)동창 대한사고개발학회 회장 선임

이대 사범대 조연순 명예교수가 2014년 11월 1일 개최된 연차대회에서 대한사고개발학회 제 8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최금숙(법학 73)동창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선임

여성정책개발원장을 역임한 최금숙 이대 교수가 2월 25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 19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조종남(의학 75)동창 서울YWCA 회장 취임

조운희 산부인과 원장인 조종남 이대 총동창회 16대 회장이 2월 10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지고 제 28대 서울YWCA 회장에 취임하였다. 서울YWCA의 위원, 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며 20여 년 동안 봉사해왔다.



허묘연(심리 89)동창 서울사이버대 총장 선임

2월 28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허묘연 동창이 임기 3년의 서울사이버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허 동창은 서울사이버대에서 학생처장, 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이대박물관 80년 역사를 한 눈에 보는 전시회 개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80년,전시전경

1930년 이화여전의 에드나 밴 프리트(Edna M. Van Fleet)교수가 박물관 건립을 제안한 이후, 1935년 신촌 캠퍼스 본관 109호에 학생과 교수가 수집한 한국민속 품을 모아 전시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역사 는 시작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유물이 흩어졌으나 부산의 필승각(必勝閣)에 박물관을 다시 열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1953년 서울 수복 후 지금의 본관에 다시 진열실을 마련하여 교수들과 사회 유지들의 수집품을 기증받았으며 이는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기반이 되었다. 1960년, 박물관 단독공간을 신축한 이후 상설전시 를 통해 소장품을 무료 공개하고 고분과 도요자를 발굴 하는 등 학술조사연구 활동에 힘썼다.

1989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의 박물관 건물을 신축 개관하였고, 1999년에는

교과 의류학과 장숙환(사학 63) 교수가 복식유물 5,000 여점을 기증한 것을 기념하여 본 박물관내에 담인 복식 미술관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시실 및 자료실을 증축하여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대 박물관은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1999년, 2000년, 2003년 3회에 걸쳐 최우수 대학박물관 으로 선정된 바 있고, 한국문예술위원회로부터 '2005년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수준 있는 전시와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 과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에도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시명: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80년

*전시장소: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B1, 기증전시관

*전시기간: 3월2일(월) ~ 2016년 1월30일(토)

*전시문의: 02-3277-3152

문화예술 아카데미 신설 - 조선시대 미술과의 만남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돋기 위하여 2015년 상반기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신설하였다. 만들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봄날, 10주에 걸쳐 진행할 본 강좌는 조선시대 회화를 시작으로 조선 백자와 가구 등 전통 공예품뿐만 아니라 복식과 건축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통해 조선시대 미술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교육기간: 2015년 4월 29일(수) ~ 7월 1일(수)
-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120분)
- 교육장소: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강당
- 교육대상: 이화동창 및 미술애호가, 문화예술에 관심에 있는 일반인
- 모집인원: 50명 내외
- 참가비: 25만원
- 수료: 80%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관장 명의 수료증 발급

● 교육내용

주	일정	주제	내용(가제)	강사
1주 4/29(수)		개설	개강식	
			조선왕조 미술의 주제성과 조형성	홍선희(전 이대 교수, 한국미술연구소장)
2주 5/6(수)	궁중회화 (미술)		조선시대 왕의 초상	조인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3주 5/13(수)			조선시대 궁중회화의 세계	박정혜(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4주 5/20(수)			조선시대 왕실 복식	홍나영(이대 의류학과 교수)
5주 5/27(수)	문인회화		그림과 문학: 명시名詩 명구名句를 그린 그림	고연희(고려대 강사)
6주 6/3(수)			조선후기 고사인물화	송희경(이대 강사)
7주 6/10(수)	공예		조선 백자	장남원(이대 박물관장)
			〈조선 백자〉 전 관람	이대박물관 학예연구원
8주 6/17(수)			조선시대 조각	송은석(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9주 6/24(수)			조선시대 목공예	최공호(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10주 7/1(수)		건축	조선시대의 건축: 전통과 계승을 중심으로	이강근(서울시립대 교수)
			수료식	

* 자세한 모집요강 및 신청접수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강의명은 변동될 수 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접수

전화 | 02-3277-3676

e-mail | museumedu@ewha.ac.kr



새로운 가치 창출할 첨단 명품 병원 건축 기념 예배

세계 최고 의료 서비스에 '이화' 정신을 담다

2018년 우리는 세계 최고 의료 서비스를 '이화의료원'에서 받게 된다. 1887년 대한민국 최초 여성병원을 설립한 후 '이화'가 서울 마곡지구에 1,000 병상 규모의 첨단 명품 병원을 가지게 되는 것. 이를 위해 1월 16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제2부속병원 및 의과대학 건축 개시 기념예배가 있었다.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이화'의 국제적 명성과 더불어 '도전과 개척', '나눔과 섬김' 정신을 담게 될 '이화 헬링스퀘어'가 우리 앞에 우뚝 서는 날을 기다린다.



제4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29주년을 맞아 총동창회는 20여만 동창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제4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시상합니다. 올해로 4회 째 맞는 이번 행사는 동창들이 가족과 함께 모교를 찾을 수 있어 한층 뜻깊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 오셔서 그림도 그리고 학교도 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2015년 5월 16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 소 이화캠퍼스 내(주후 공지)

참가자격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화동창의 손주나 자녀, 교직원 자녀)

참가비 20,000원(기념품 및 2인 점심 제공)

문 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 3387

팩스 02-393-9141

e-mail ewhaalum@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1999년 개원 16년의 전통 "제일정형외과병원" 청담동 확장개원
당신의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1. 100세 시대, 꼿꼿한 허리 튼튼한 관절에서부터! 「척추클리닉 · 관절클리닉」
2. 풍부한 진료경험의 집약! 「내과진료」
3. 검진에서 진단 진료를 한 곳에서! 「종합건강검진센터」

※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시간

척추클리닉 월~금 : 09:00 ~ 19:30

관절클리닉 토요일 : 09:00 ~ 15:00

내 과 월~금 : 09:00 ~ 19:00

토요일 : 09:00 ~ 15:00

진료안내

척 추 클 리 닉

관 절 클 리 닉

내과 · 검진센터



제일정형외과병원

CHEIL ORTHOPEDIC HOSPITAL

대표번호 02) 501-6868

www.cheilos.com



"Looking for destiny"

참 한결같은 S노블.

험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